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정답과 해설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본문 9~1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일방향적, 유통 속도, 복합 양식적
- 02 ㉠, ㉢, ㉤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는 전통적 매체인 종이 신문이고, (나)는 뉴 미디어인 포털 사이트이다. (가)는 생산된 정보를 수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는 인터넷망을 활용해 생산된 정보를 수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가)는 인쇄되어 유포되는 과정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생산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다. 또한 (가)는 문자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나)는 하나의 매체에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정보를 제시하는 복합 양식적 특징을 보여 준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 ㉠ (나)는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나)에서는 기사 정렬 기준을 '관련도순', '최신순', '오래된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사의 제시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 ㉢ (나)에는 검색어와 관련된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한 화면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수용자가 각각 클릭하여 열람하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 ㉤ (나)에는 검색의 결과로 제시된 주요 기사 하단에 검색어의 일부 단어를 포함한 관련 기사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사를 클릭하여 화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본문 15~16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2)	(3)
	최소 대립쌍	기름-지름	거울-개울	쓸다-늘다
02	처음 발음할 때의 모음	발음 기관의 주요한 움직임	움직임 후 발음 되는 모음	
(1)	[ㅏ]	혀를 앞으로 움직인다.	[ㅓ]	
(2)	[ㅡ]	입술을 동그랗게 한다.	[ㅜ]	
(3)	[ㅑ]	입을 약간 다물어 혀를 높인다.	[ㅓ]	
03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는 단어		
	앞어금니, 책장, 맨입	구급약, 막일, 젓병		

01 최소 대립쌍

- (1) '기름'과 '지름'은 첫음절 초성의 'ㄱ'과 'ㄷ'의 차이로 다른 단어가 되었다. '주름'은 '기름'과 첫음절의 초성 및 중성의 소리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 (2) '거울'과 '개울'은 첫음절 중성의 'ㄱ'과 'ㄱ'의 차이로 다른 단어가 되었다. '더욱'은 '거울'과 첫음절의 초성 및 두 번째 음절의 중성 소리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 (3) '쓸다'와 '늘다'는 첫음절 초성의 'ㅍ'과 'ㄴ'의 차이로 다른 단어가 되었다. '날다'는 '쓸다'와 첫음절의 초성 및 중성의 소리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02 국어의 모음 체계

- (1) 'ㅏ'는 후설 모음으로서, 혀를 앞으로 움직이면 전설 모음인 'ㅓ'가 발음된다.
- (2) 'ㅡ'는 평순 모음으로서, 입술에 힘을 주어 동그랗게 하면 원순 모음인 'ㅜ'가 발음된다.

(3) ‘니’는 중모음으로서, 입을 약간 다물어 혀를 높이면 고모음인 ‘ㄷ’가 발음된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앞어금니’를 발음할 때, 첫음절 중성 자리의 ‘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을 겪어 ‘ㅂ’이 된 후 다음 음절 초성에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다. 중성 자리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로 이동하여 소리 나는 것은 음운 변동이 아니다. ‘책장’을 발음할 때는 경음화(된소리되기), ‘맨입’을 발음할 때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 ‘구급약’과 ‘막일’을 발음할 때,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젓병’을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과 경음화(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높푸르다’는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03 단어의 의미 관계

㉠에서 ‘빼다’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의 뜻이다. 이 뜻과 문맥을 고려하면 ‘더하다’가 적절한 반의어이다. ㉡에서 ‘빼다’는 ‘속에 들어 있거나 끼여 있거나, 박혀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의 뜻이다. 이 뜻과 문맥을 고려하면 ‘박다’가 적절한 반의어이다. ㉢에서 ‘빼다’는 ‘젓방 따위를 비우다.’의 뜻이다. 이 뜻과 문맥을 고려하면 ‘비우다’가 적절한 유의어이다. ㉣에서 ‘빼다’는 ‘긴 형태의 물건을 뽑아내다.’의 뜻이다. 이 뜻과 문맥을 고려하면 ‘뽑다’가 적절한 유의어이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_2 단어

본문 23~24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 ㉡, ㉢, ㉣: ㉢, ㉣, ㉠
- 02 (1) 어근 ‘구경’에 접미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
(2)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한 합성어
(3) 어근 ‘사랑’에 접두사 ‘뜻-’이 결합한 파생어
(4) 어근 ‘뽑-’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
- 03 ㉠: 더하다, ㉡: 박다, ㉢: 비우다, ㉣: 뽑다

01 형태소의 종류

㉡는 명사, ㉢는 부사로 자립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 형태소이다. ㉣는 조사, ㉣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 ㉠는 선어말 어미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형식 형태소이다. ㉢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이기도 하다.

02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구경꾼’의 ‘-꾼’은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뜻사랑’의 ‘뜻-’은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뽑히다’의 ‘-히-’는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_3 문장

본문 31~32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관형어	실현 방식
(1)	다쳤던	㉡
	새	㉢
(2)	맑은	㉡
	동생의	㉣
	동네	㉣

02

㉠: ‘-던’, ㉡: 명사절, ㉢: ‘-기’, ㉣: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

03

	㉠	㉡	㉢	㉣	㉤
(1)	×	○	○	×	×
(2)	×	×	×	○	○
(3)	○	×	×	×	○

01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

‘다쳤던’은 용언의 어간 ‘다치-’에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고,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였다. ‘맑은’은 용언의 어간 ‘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고, ‘동생의’는 체언

‘동생’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다. ‘동네 근처’에서는 체언 ‘동네’가, 뒤에 오는 체언 ‘근처’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02 안은문장

(1)에는 ‘종일 피곤해하던’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데, 이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던’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관형사절은 이어지는 ‘동생’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2)에는 ‘이곳에 집을 짓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는데, 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기’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명사절은 조사 ‘로’와 결합하여 서술어 ‘결심하였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3)에는 ‘지현이가 그 행사에 참여했음’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데, 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명사절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3 높임 표현

(1)의 주어 ‘선생님께서서는’에서 ‘께서는’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고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이다. 각각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한다. (2)의 부사어 ‘할아버지께’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 ‘께’가 붙어 있다. 서술어 ‘드렸다’에서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다. ‘께’와 ‘드렸다’는 행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3)의 ‘모시고’에서 ‘모시다’는 ‘테리다’의 높임말로, 행위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가셨다’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④ 담화/국어사

본문 38~39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과 ㉡

02	조사의 종류
(1)	관형격 조사
(2)	부사격 조사
(3)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4)	호격 조사

03 (가)의 ‘마를’과 ‘거름’, (나)의 ‘물근’과 ‘어드븐’

01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 맥락으로 보아 ㉠은 화자인 ‘가은’과 청자인 ‘나영’, ‘다희’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의 ‘우리’는 화자인 ‘나영’과 청자인 ‘다희’, ‘가은’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과 ㉡에서 ‘우리’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다르므로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에서 ‘우리’는 화자인 ‘가은’이 자기 자신과 ‘나영’을 가리키는 말이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1)의 ‘나라’에는 ‘나라’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되어 있고, ‘말 쓰미’는 ‘말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연결된 형태이다. (2)의 ‘무티’는 ‘말’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3)의 ‘내’는 ‘나’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고, ‘이룰’은 ‘이’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였다. (4)의 ‘미룩아’는 ‘미룩’에 존칭이 아닌 호격 조사 ‘야’가 결합된 형태이다.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가)에서 ‘마를’은 체언 ‘말’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말’의 중성이 양성 모음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 중 ‘을’이 결합하였다. ‘거름’은 체언 ‘거름’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거름’의 둘째 음절에 음성 모음이 있으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였다. (나)에서 ‘물근’은 용언의 어간 ‘물-’에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이고, ‘어드븐’은 용언의 어간 ‘어듭-’에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서도 선행하는 용언 어간의 모음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 ‘은/은’이 모음 조화에 맞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본문 44~46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심미적
- 02 문자, 소리, 영상
- 03 (가)는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04 ㉠: 반려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인쇄 매체보다 개방적인 인터넷 매체가 더 효과적임.

01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인쇄 매체 자료인 시는 행과 연의 배열 및 구성 등을 통해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며, 영상 매체 자료인 영화는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촬영 각도, 장면의 배열 등을 통해 심미적 가치를 드러낸다.

02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영상 매체의 하나인 영화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을 정보 표현을 위한 매체 언어로 활용한다.

03 매체 언어가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나)에서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친구와 소통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반려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자는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다른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다. 매체 자료 선정의 이유로 ‘학생 1’은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가 더 개방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 인쇄 매체보다 개방적인 인터넷 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본문 48~5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 ㉡, ㉢
- 02 ㉠: 저작권
㉡: 개인 정보 보호

01 매체 소통의 특성

휴대 전화 대화방에서의 소통도 의사소통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과도한 줄임말, 은어, 한글 파괴형 표현 등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사진을 첨부하려면 자료가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02 매체 소통의 특성

수정된 포스터에서 포스터의 문구를 직접 쓴 손 글씨로 수정한 것으로 볼 때,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터의 사진을 박물관 건물만 나온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물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부 적용 학습

01

언어

본문 54~57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1 국어의 모음 체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ㅐ’와 ‘ㅑ’는 모두 저모음으로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단모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단모음은 모두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구분하면, ‘ㄱ, ㅋ’는 고모음, ‘ㅓ, ㅗ’는 중모음이다.

② (나)의 단모음은 모두 혀가 앞쪽에 위치하는 전설 모음이다.

③ (다)의 단모음은 모두 고모음으로서 혀의 높이가 같은 단모음이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ㄱ, ㅋ’는 전설 모음, ‘ㅡ, ㅜ’는 후설 모음이다.

④ (라)의 단모음은 모두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이다.

02 국어의 모음의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ㅐ]는 반모음 ‘ㅓ’와 단모음 [ㅐ]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ㅑ]는 반모음 ‘ㅑ’와 단모음 [ㅑ]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단모음 [ㅐ]와 [ㅑ]가 잘 구분되지 않으면 [ㅐ]와 [ㅑ]도 구분하기 어렵게 되고, 표기할 때 ‘ㅐ’, ‘ㅑ’가 헛갈릴 수 있다. [ㅓ]는 반모음 ‘ㅓ’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ㅓ]를 발음할 때 반모음 ‘ㅓ’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키면 [ㅓ]로 소리 나므로,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키면 [ㅓ]와 [ㅓ]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고, 표기할 때 ‘ㅓ’, ‘ㅓ’가 헛갈릴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ㅐ]와 [ㅑ]는 반모음 ‘ㅓ’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표기에서 ‘ㅐ’와 ‘ㅑ’가 헛갈리는 것은 단모음과 이중 모음이 발음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ㅐ]와 [ㅑ]는 단모음 [ㅐ]와 [ㅑ]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표기에서 ‘ㅐ’와 ‘ㅑ’가 헛

갈리는 것은 두 단모음이 발음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ㅐ]와 [ㅑ]는 모두 단모음으로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이 없다. ‘수완’과 ‘수환’은 [ㅎ]을 제대로 발음하는지와 관련된 헛갈리는 표기이므로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이 없다.

④ [ㅓ]와 [ㅑ]는 반모음 ‘ㅓ’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ㅓ]와 [ㅓ]는 반모음 ‘ㅓ’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⑤ [ㅐ]와 [ㅑ]는 단모음 [ㅐ]와 [ㅑ]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ㅓ]와 [ㅑ]는 단모음 [ㅓ]와 [ㅑ]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03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ㅃ, ㅍ, ㅌ, ㄷ’은 양순음(입술소리)으로서, 발음할 때 입술을 사용하여 소리를 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ㅁ, ㄴ, ㅇ’은 모두 비음으로서, 발음할 때 코로도 공기가 빠져나가므로 코가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② ‘ㅅ, ㅆ, ㅈ’은 경구개음(센입천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이다. 파찰음을 발음할 때는 먼저 파열음처럼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기는 하지만, 공기를 내보낼 때는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찰음처럼 공기를 마찰하여 소리를 낸다.

③ ‘ㅍ, ㅌ, ㅋ, ㆁ’은 거센소리로서, 발음할 때 공기를 많이 내보내는 소리이다. 공기를 계속 좁은 틈으로 내보내는 소리는 마찰음이다.

④ ‘ㅅ, ㅆ, ㅎ’은 마찰음으로서, 입안이나 목구멍에서 공기를 마찰시켜 입으로 내보내는 소리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에서는 ‘ㄱ’이 비음인 ‘ㅇ’이 됨으로써 그 뒤에 오는 자음인 ‘ㅁ’과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㉟에서는 ‘ㄴ’이 유음인 ‘ㄹ’이 됨으로써 그 뒤에 오는 자음인 ‘ㄹ’과 똑같아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㉞의 ‘산뿔’은 명사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㉟에서는 ‘ㅎ’이 탈락한 후 ‘ㄴ’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탈락만 일어났다.

㉓ ㉑에서는 파열음인 ‘ㅂ’이 같은 조음 위치의 ‘ㅃ’으로 바뀌었다. ㉒에서는 파열음인 ‘ㄱ’이 같은 조음 위치의 ‘ㅇ’으로 바뀌었다.

㉓ 한자어라는 조건은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다. 비음화는 ‘ㄱ, ㄷ, ㅂ’ 뒤에 비음이 오기만 하면 일어난다. 유음화는 ‘ㄴ’이 ‘ㄹ’과 인접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에서도 일어나므로 한자어라는 조건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아니다.

05 탈락, 축약

답 ㉓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사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붙으면 [서]로 발음된다. 이는 서로 같은 모음이 만나면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동사 ‘굽히다’는 어근 ‘굽-’에 접미사 ‘-히-’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어근 끝의 ‘ㄱ’과 접미사의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크]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커]는 ‘크-’에 ‘-어’가 결합하여 ‘ㄱ’이 탈락한 사례이다. [조퍼]에서는 어근 ‘줍-’의 ‘ㅂ’과 접미사 ‘-히-’의 ‘ㅎ’이 축약되어 [포]로 발음된다.

② [저]는 어간 ‘자-’에 ‘-야’가 결합했을 때 ‘ㅈ’이 탈락해서 나타난 발음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그러나 [싸여]는 ‘ㅎ’이 탈락한 사례이다.

④ [봐:]는 ‘보아’에서 단모음 ‘ㅛ’가 반모음 ‘w’로 바뀌어 한 음절로 줄어들어 발음된 사례이다. [노여]는 ‘ㅎ’이 탈락한 사례이다.

⑤ [와]는 ‘오-’에 ‘-야’가 결합한 형태로서 항상 [와]로 실현된다. [노파]는 ‘ㅍ’이 연음된 사례이다.

06 표준 발음법의 이해

답 ㉑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하여 축약이 일어날 때는, ‘ㅎ’과 결합하는 자음이 ‘ㄱ, ㄷ, ㅂ, ㅈ’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조사, 어미,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라는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제12항의 ‘1’에서도 형태소에 대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8항에서 받침소리는 종성을 의미한다. 국어의 종성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초성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자음의 원래 소리가 날 수 있다.

③ ‘ㅎ’이 종성에 다른 자음과 함께 있더라도 항상 다른 자음 뒤에 있어 음절의 끝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탈락한다.

④ 조사, 어미,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제13항은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관련된 조항이다. 연음이 되면 종성 자리의 자음이 초성 자리에서 발음되고, 종성에 있는 제약이 초성에는 없으므로 자음의 원래 소리가 난다. 원래 소리를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 음가’로 표현하고 있다.

⑤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을 가진 단어는 연음이 일어나면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 다만, ‘ㅎ’은 탈락하고, ‘ㅅ’은 종성의 자음 군에서 ‘뫼, 값’과 같이 ‘ㄱ, ㅂ’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뫼이[목씨], 값음[감쓸]’과 같이 ‘ㅅ’으로 발음되므로 제 음가를 확인할 수 없다.

02 언어		본문 58~61쪽	
01 ㉒	02 ㉑	03 ㉔	04 ㉕
05 ㉓	06 ㉖		

01 한글 맞춤법의 이해

답 ㉑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각 조항에 제시된 한자음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초성의 자음을 ‘ㅇ’이나 ‘ㄴ’으로 표기한다.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초성의 ‘ㄴ’이나 ‘ㄹ’을 본음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단어의 첫머리는 단순히 음절의 초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각 조항의 [붙임 1]에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③ 제11항의 조항 중 [붙임 1] 다음의 ‘다만’의 내용을 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울’로 적고 이외에는 ‘렐, 룰’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제10항~제12항 모두 한자음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외래어의 표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⑤ 제10항에서 한자음 ‘녀’를 다루고 있다. ‘男女’는 한 단어이고, ‘女’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으므로, 본음대로 ‘녀’로 적는다.

02 표준 발음법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어간 ‘테-’는 전설 모음 ‘ㅐ’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연결되었는데, [테어서]가 아니라 [테여서]로 발음 되었으므로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j’ 첨가 중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간이 ‘ㄷ, ㄴ, ㄱ’로 끝났을 때이다. 따라서 ‘기어서’를 [기여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고여서]는 어간 ‘고이-’의 발음 ‘i’가 ‘j’로 바뀐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③ [이겨서]는 어간 ‘이기-’의 발음 ‘i’가 ‘j’로 바뀐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수겨서]는 어간 ‘숙이-’의 발음 ‘i’가 ‘j’로 바뀐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돌려서]와 [실려서]는 각 어간의 발음 ‘l’가 ‘j’로 바뀐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봄빛’과 ‘등불’은 모두 합성어이며, 발음할 때 공명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물새’와 ‘봄밤’은 모두 합성어이며, 발음할 때 공명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다.
- ② ‘산길’과 ‘창가’는 모두 합성어이며, 발음할 때 공명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다.
- ③ ‘촉각’은 발음할 때 ‘ㄱ, ㄷ, ㅂ’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에 합성어라는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물값’은 합성어이면서, 발음할 때 공명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 ⑤ ‘복습’은 발음할 때 ‘ㄱ, ㄷ, ㅂ’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에 합성어라는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화병’은 합성어이면서, 발음할 때 모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04 교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ㄷ, ㅌ’이 ‘ㅌ, ㅊ’으로 바뀐다. ‘ㅌ, ㅊ’은 정구개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비음화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ㄱ, ㄷ, ㅂ’은 모두 파열음이다.
- ② 비음화가 일어나면 파열음이 비음이 된다.
- ③ 비음화가 일어나면 조음 방법만 바뀌고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 ④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ㄷ, ㅌ’이 ‘ㅌ, ㅊ’으로 바뀐다. ‘ㄷ, ㅌ’은 치조음이다.

05 탈락, 축약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알약[알략]’에서는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다. ‘복잡성[복잡썩]’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두 번 일어났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녹물[농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났지만, ‘젊음[절름]’에서는 연음만 일어나고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 ② ‘글개[글개]’에서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식용유[시공뉴]’에서는 ‘ㄴ’ 첨가만 일어났다.
- ④ ‘뚫단배[뚫판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밭이랑[반니랑]’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났다.
- ⑤ ‘끓는점[끌른점]’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일어났다. ‘늦어름[느너름]’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났다.

06 표준 발음법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쌍인[짜인]’은 어근 ‘쌍-’에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연음 환경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많아서[마:나서]’는 어간 ‘ 많-’에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이므로 연음 환경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ㅎ’ 뒤에 ‘ㄱ’이 오면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 ‘않는다’는 어간 ‘않-’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와서 ‘ㅎ’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이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03 언어

본문 62~65쪽

-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1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와 ‘당장 거기 서!’에 쓰인 ‘거기’는 모두 지시 대명사이다. 두 문장에 쓰인 ‘거기’는 모두 품사가 대명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가변어이다. ‘도’는 보조사, ‘이나’는 접속 조사로 불변어이다.
② ‘깊게 잠의 잠’은 동사로 용언이다. ‘깊은 잠’에서 ‘잠’은 명사로 체언이다.
③ ‘미숙할 뿐이다’의 ‘뿐’은 명사로 체언이다. ‘너뿐이다’의 ‘뿐’은 보조사로 관계언이다.
⑤ ‘첫째’는 체언으로 명사이다. ‘첫 시험’의 ‘첫’은 수식언으로 관형사이다.

02 품사의 특성 - 체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저’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로,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를 포함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은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이다. 하지만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자기’는 앞에 나온 체언 ‘형’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하지만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데’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이다. 하지만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⑤ ‘당신’은 앞에 나온 체언 ‘아버지’를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이

다. 하지만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03 국어사전 정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에 쓰인 ‘이다’는 명사 ‘불만’ 뒤에 붙어 ‘나’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ㄹ에 쓰인 ‘이다’는 명사 ‘걱정’ 뒤에 붙어 ‘누나’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ㄷ과 ㄹ에 쓰인 ‘이다’는 모두 용언처럼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에 쓰인 ‘이다’는 체언 ‘금’ 뒤에 붙었고, ㄴ에 쓰인 ‘이다’는 체언 ‘학교’ 뒤에 붙었다. ㄱ과 ㄴ의 ‘이다’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모두 「1」의 예에 해당한다.

04 품사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저 사람이’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고, ‘저하고’의 ‘저’는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저 사람이’, ‘저하고’에 쓰인 ‘저’는 동음이의어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앞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앞의 ‘잘못’은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을 뜻하는 명사이고, 뒤의 ‘잘못’은 ‘적당하지 아니하게.’를 뜻하는 부사이다.
③ 앞의 ‘마져’는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의 부사이고, 뒤의 ‘마져’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앞의 ‘모두’는 ‘일정한 수효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빠짐이나 넘침이 없는 전체.’를 뜻하는 명사이고, 뒤의 ‘모두’는 ‘일정한 수효나 양을 빠짐없이 다.’를 뜻하는 부사이다.

05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붙어 ‘중아’로 활용하

정답과 해설

고, ‘넣-’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붙어 ‘넣어’로 활용한다. ‘놓다’와 ‘넣다’는 모두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쑤다’는 ‘쑤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푸다’는 ‘피’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② ‘씻다’는 ‘씻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젓다’는 ‘저어’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③ ‘입다’는 ‘입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돕다’는 ‘도와’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④ ‘받다’는 ‘받아’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묻다’는 ‘물어’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06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잡아당기지 못했다’는 한 개의 본용언과 한 개의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말이지만, ‘당기지’가 보조 동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용언이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버리니’는 본용언 ‘가’와 보조 용언 ‘버리니’로 구성된 말이다.
- ③ ‘끓주리고 있던’은 ‘끓(다)’와 ‘주리고’가 결합한 합성 용언 ‘끓주리고’가 본용언으로 기능하며 보조 용언 ‘있던’과 함께 쓰인 말이다.
- ④ ‘도와주었다’는 본동사 ‘도와’와 보조 동사 ‘주었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언이 단독으로 쓰인 말이다.
- ⑤ ‘오지 않을까 싶었다’는 본용언 ‘오지’, 보조 용언 ‘않을까’, 보조 용언 ‘싶었다’로 구성된 말이다.

04 언어 본문 66~68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③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햇과일’에서 ‘햇-’은 접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사느라’에서 ‘-느라’는 어미로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떡일’(떡- + -이- + -ㄹ), ‘사느라’(사- + -느라)는 모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② ‘햇과일’(햇- + 과일)은 의존 형태소인 ‘햇-’과 자립 형태소인 ‘과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막내아들’(막내 + 아들)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막내’와 ‘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떡일’(떡- + -이- + -ㄹ)에서 실질 형태소는 ‘떡-’이고, ‘힘들었다’(힘 + 들- + -었- + -다)에서 실질 형태소는 ‘힘’과 ‘들-’이다.

02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맨발’은 접두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된 파생어이고, ‘발가락’은 어근 ‘발’과 어근 ‘가락’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맨발’이나 ‘발가락’은 모두 하나의 단어인 ‘발’을 어근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집밥’(집 + 밥)이나 ‘밥그릇’(밥 + 그릇)은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모양새’(모양 + -새)는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새집(새 + 집)’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모양새’의 ‘-새’와 ‘새집’의 ‘새’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 ④ ‘햇소리’(햇- + 소리)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고, ‘소리꾼’(소리 + -꾼)은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한가위’(한- + 가위)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고, ‘가위질’(가위 + -질)은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한가위’의 ‘가위’와 ‘가위질’의 ‘가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03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잘생긴’은 ‘잘 + 생기- + -ㄴ’으로 분석되는 말로, ‘잘’은 부사이다. 그러므로 용언의 부사형과 용언이 결합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 ‘보슬’과 명사 ‘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팔죽’은 명사 ‘팔’과 명사 ‘죽’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린’과 명사 ‘이’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뉘뉘’는 용언 어간 ‘뉘-’과 명사 ‘뉘’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4 단어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하루아침’은 ‘하루+아침’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명사 ‘하루’, ‘아침’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관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어느새’는 ‘어느+새’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명사와 관형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홀쩍홀쩍’은 ‘홀쩍+홀쩍’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명사나 관형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또다시’는 ‘또+다시’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명사나 관형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한번’은 ‘한+번’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명사와 관형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진짜’는 단어들이다.

05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재주넘-기’는 ‘재주넘-’과 ‘-기’의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 이 경우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어 파생어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리-바꿈’은 ‘자리’와 ‘바꿈’의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 이 경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어 합성어로 볼 수 있다.

② ‘미달이-문’은 ‘미달이’와 ‘문’의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 이 경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어 합성어로 볼 수 있다.

④ ‘첫-걸음’은 ‘첫’과 ‘걸음’의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 이 경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어 합성어로 볼 수 있다.

⑤ ‘헌-신짜’는 ‘헌’과 ‘신짜’의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다. 이 경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어 합성어로 볼 수 있다.

06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뜻일 때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고,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때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강산’은 ‘강과 산’이라는 뜻일 때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고, ‘나라의 영토’라는 뜻일 때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② ‘밤낮’은 ‘밤과 낮’이라는 뜻일 때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뜻일 때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④ ‘눈물’은 ‘눈알 바깥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는 뜻일 때나 ‘눈이 녹아서 된 물’이라는 뜻일 때 모두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종속 합성어이다.

⑤ ‘안팎’은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이라는 뜻일 때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고,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라는 뜻일 때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05 언어

본문 69~7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④

06 ②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요한’은 형용사 ‘중요하다’의 활용형이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간식도’는 서술어 ‘먹고 싶네’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② ‘싸움’은 서술어 ‘되겠는데’가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보어에 해당한다.

③ ‘상식적인’은 명사 ‘이야기’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으며, 명사 ‘상식적’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의 활용형이다. 관형사는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④ ‘아주’는 부사 ‘안’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와 부사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냉장고에’는 서술어 ‘넣었다’가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이며, 관형사절 ‘이따 저녁에 먹을’은 의존 명사 ‘것’이 꼭 필요로 하는 관형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력한’과 ‘대가를 얻는’은 ㉠에 해당하나, ㉠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대학생이 되는’은 ㉠에 해당하나, ㉠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④ ‘관광단 일행과’와 ‘숙소로’는 ㉠에 해당하나, ㉠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동생에게’는 ㉠에 해당하나, ㉠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와 부사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랜’은 ‘역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지만, ‘매우’는 관형사 ‘오랜’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리’는 대명사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 ‘학교’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 ③ ‘그녀의’는 대명사 ‘그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어이다.
- ④ ‘어두운’은 주어에 해당하는 ‘구석이’ 따위가 생략된 관형사절로, 관형사절이 뒤에 오는 명사 ‘구석’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 ⑤ ‘광수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로, 절 전체가 뒤에 오는 명사인 ‘소문’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04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밝혔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맞으나, ‘실시한’은 주어와 목적어만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정부에서’는 ‘실시한’의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서’가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반짝이는’은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반짝였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② ‘기여한’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나, ‘수상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둘은 모두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다.
- ④ ‘웃던’과 ‘울’은 모두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주어로 선택할 수 있는 체언의 속성도 유정 명사로 동일하다.
- ⑤ ‘마시고’와 ‘먹었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나, ‘먹었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음식 전반이 올 수 있는 반면에 ‘마시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액체만이 올 수 있다.

05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사용된 종결 어미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면서 감탄의 뜻을 수반하고 있으나, ㉡에 사용된 종결 어미 ‘-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감탄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은 그렇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종결 어미 ‘-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피자 먹’는 행동을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은 종결 어미 ‘-어’로 문장을 끝맺으며 ‘라면 먹었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묻고 있다.
- ③ ㉣은 종결 어미 ‘-르게’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행동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어’라는 종결 어미를 가진 문장이나, 문장 끝의 억양에 따른 종결 표현의 종류는 각각 평서문과 의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6 의문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니요, 그냥 쉬고 있어요.’라는 대답으로 보아 ‘여기서 누구 기다리세요?’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누구’는 미지칭이 아니라 부정칭의 대명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는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③ ‘어디에서 샀어?’는 ‘어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④ ‘저기 서 계시는 선생님이 누구세요?’는 ‘누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는 거니?’는 일종의 반어적 의문문으로, 말하는 사람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6 언어 본문 74~78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④		

01 안은문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있는 안긴절인 명사절 ‘키가 크기’를 살펴보면, 절 안의 서술어 ‘크기’는 형용사이므로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에 있는 안긴절인 관형사절 ‘키가 큰 선수가 이 팀에 온다’와 ‘키가 큰’을 살펴보아도 각각의 절 안의 서술어 ‘온다’와 ‘큰’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인 ‘키가 크다’가 있고,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인 ‘키가 참 크다’가 있다.
- ③ ㉠은 안은문장에 관형어 ‘그’가 있고, ㉡은 인용절 ‘저 선수는 키가 참 크다’고 속에 관형어 ‘저’가 있다.
- ④ ㉡은 관형사절 ‘내가 아주 좋아하는’ 속에 부사어 ‘아주’가 있고, ㉠은 안은문장에 부사어 ‘계속’이 있다.
- ⑤ ㉠에는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키가 크기’가 있다.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없다.

02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관형사절 ‘몽룡이가 춘향이와 헤어진’에는 생략된 필수적 문장 성분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늘에 뜬’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태양’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관형사절이다.
- ② ‘진실이 아닌’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그) 말’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관형사절이다.
- ③ ‘귀에 이어폰을 낀’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말’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관형사절이다.

⑤ ‘이 책에 달린’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제목’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관형사절이다.

03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쌓인’은 동사 어간 ‘쌓이-’에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니’이 붙어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의 ‘읽던’은 동사 어간 ‘읽-’에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동사/과거/완료
- ㉡: 바람이 불어 예쁜던 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형용사/과거
- ③ ㉠: 나는 홀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다.
형용사/현재
- ㉡: 선생님께서는 내 상담 요청에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동사/과거/미완료
- ④ ㉠: 그는 손등에 수액 바늘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동사/과거/완료
- ㉡: 깨끗하던 계곡물에 맨발을 담그고 재미나게 놀았었다.
형용사/과거
- ⑤ ㉠: 누나는 한참 만에 무거운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형용사/현재
- ㉡: 우리를 앞질러 달리던 말들도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동사/과거/미완료

04 이어진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는 앞 절의 주어인 ‘음식’이 뒤 절의 생략된 주어인 ‘내가’ 따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라.’는 뒤 절에 명령문이 왔으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 ③ ‘나는 머리에 꽃을 달아서 장식했다.’는 앞 절의 ‘-아서’ 앞

정답과 해설

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할 수 없으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④ ‘이 길은 좁아서 큰 차가 못 지나간다.’는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문장이 성립하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⑤ ‘하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앞 절의 ‘-어서’ 앞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할 수 있으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05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명사절 ‘혼자 있기’에 격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명사절이 보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인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사절 ‘그가 이 사진의 범인임’에 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명사절 ‘정부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함’에 보조사 ‘은’이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④ 명사절 ‘학생들은 지금 바로 강당으로 모여 주시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⑤ 명사절 ‘영화를 보러 가기’에 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06 겹문장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앞 절의 목적어는 ‘휴식일’인데,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뒤 절의 ‘이곳’으로 바뀌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㉞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뒤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형사절 ‘유명인과 함께 찍은’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나’가 안은문장의 주어 ‘나는’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인용절의 관형어 ‘자기가 지시하는 대상인 ‘남편’이 안은문장의 주어 ‘남편은’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앞 절 ‘이 금속은 아주 가볍지마는’과 뒤 절 ‘쇠보다도 단단하다.’의 주어는 둘 다 ‘이 금속은’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뒤 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앞 절의 부사어 ‘지하철에서’가 지시하는 대상인 ‘지하철’이 뒤 절에서 ‘거기’로 바뀌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7 언어	본문 79~82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1 시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좋아졌어요.’는 ‘좋-+-아지-+-았-+-어+요’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형용사 ‘좋다’가 쓰였으며 선어말 어미로 ‘-였-’이 아니라 ‘-았-’이 쓰였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였-’을 사용하여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올더니’는 ‘올-+-더-+-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선어말 어미 ‘-더-’가 화자인 할머니가 아침에 까치가 운 일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이고 있다.
- ② ‘올’은 ‘오-+-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윤찬이가 할머니를 찾아온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르’는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 ④ ‘않았었는데’는 ‘않-+-았었-+-는데’로 분석할 수 있는데, 선어말 어미 ‘-았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른 작년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고 있다.
- ⑤ ‘입학한다고’는 ‘입학하-+-ㄴ-+-다고’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ㄴ-’은 윤찬이가 내년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사건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다.

02 실현 인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그녀가 재능이 풍부해서 꼭 작가로 성공하리라고 확신했다.’에서 ‘-리-’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므로 ㉞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㉞의 예로는 ‘나는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따위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릉에는 함박눈이 와.’와 비교해 보면, ‘지금쯤 강릉에는 함박눈이 오겠다.’에는 강릉에 함박눈이 올 것 같다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의미가 덧붙여 있다.
- ② 커서 반드시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겠-’이 1인칭 주어의 평서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 ③ 우리 반 대표로 학생회에 참석해 줄 의향을 묻기 위해 ‘-겠-’이 2인칭 주어의 의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 ④ 그가 이번 달에는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기 위해 ‘-리-’가 사용되고 있다.

03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름이 걷힌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의 예가 아니라,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X가 구름을 걷다.’를 상정해 보면, 이것이 제시된 문장에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다’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가구들이 밖으로 옮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방을 도배하려고 가구들을 밖으로 옮겼다.’는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 ③ ‘돈을 잘 굴리다’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돈이 잘 구르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밖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다.’는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 ④ ‘X가 날씨를 풀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벌써 경칩이 가까운데 날씨가 풀릴 기미도 없다.’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 ⑤ ‘감기가 너를 걸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라.’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04 부정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한여름인데 요즘은 날씨가 별로 덥지 않다.’는 날씨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문장이며, 부정 보조 용언 구성인 ‘-지 않다’가 쓰인 긴 부정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리 언니는 키가 안 작다.’는 단순한 사실의 부정을 나타내나, 긴 부정이 아니라 짧은 부정이다.
- ③ ‘금구에서 전주까지는 사십 리가 좀 안 되었다.’는 거리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문장이나, 긴 부정이 아니라 짧은 부정이다.
- ④ ‘아내가 있는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문장이나, 긴 부정이 아니라 짧은 부정이다.
- ⑤ ‘나는 배가 고팠는데도 밥을 먹지 않고 버티었다.’는 주체의 의지에 대한 문장이므로 단순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높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쭙고’는 객체인 ‘팀장님’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십시오’는 대화 상황의 청자(상대방)인 ‘예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는 이메일을 본 주체인 ‘선배님(예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습니까’는 대화 상황의 청자인 ‘예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으므로 둘은 같은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② ‘께서는’는 주체인 ‘부장님’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요’는 대화 상황의 청자인 ‘성준’을 높이기 위해 쓰였으므로 둘은 서로 다른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③ ‘께’는 객체인 ‘선배님(예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습니다’는 청자인 예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으므로 둘은 같은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④ ‘모시고’는 객체인 ‘팀장님’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드리기’는 객체인 ‘성준’을 높이기 위해 쓰였으므로 둘은 서로 다른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06 인용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알렸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꾼 문장으로는 ‘위원회는 승아에게 그녀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알렸다.’ 따위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이 참 예쁘구나!’는 감탄문이며 감탄문은 간접 인용을

할 때 평서문으로 나타나므로, ‘-다고’를 사용하여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다고 감탄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② “언제 집에 가니?”는 의문문이며 서술어에 동사가 쓰였으므로, ‘-냐고’를 사용하여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③ “나도 힘이 세.”는 평서문이므로 ‘-다고’를 사용하며, 화자의 현재 관점을 고려할 때 대명사 ‘나’는 ‘자기’로 바꾸어야 하므로 ‘민지가 현수에게 자기도 힘이 세다고 말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⑤ “내일은 일찍 오라.”는 명령문이므로 ‘-라고’를 사용하며, 화자의 현재 관점을 고려할 때 ‘내일’은 ‘오늘’로 바꾸어야 하므로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오늘은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08 언어 본문 83~87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1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습니다’는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먼저 가겠습니다.’는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이 평서문에 해당한다. 길을 막은 사람에게 비켜 줄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발화하는 것은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함께 하교할 것을 부탁하려는 의도로) 학교 마치고 우리 같이 가자.’는 청유문을 통해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직접 발화이다.
- ② ‘(방에서 나와서 식사할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는 명령문을 통해 요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직접 발화이다.
- ④ ‘(난방기를 켜 줄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추워서 온몸이 으스스 떨리네.’는 평서문을 통해 요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⑤ ‘(요리 재료를 사 올 것을 부탁하려는 의도로) 지금 가게 문 열었겠지?’는 의문문을 통해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02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⑥의 대명사 ‘우리’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또한 문맥상 어떤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것이 아니어서 지시 대명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희’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들일 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화자인 ‘선생님’이 ‘서경’과 ‘승찬’을 가리키기 위해 ‘너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저희’는 일인칭 대명사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화자인 ‘서경’이 자신과 ‘승찬’을 상대인 ‘선생님’에게 낮추어 이르기 위해 ‘저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어디’는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화자인 ‘선생님’이 자신이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기 위해 ‘어디’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그분’은 ‘그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화자인 ‘서경’은 ‘승찬’이 언급한 ‘하□□’를 높여 이르기 위해 ‘그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03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담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책장, ㉡과 ㉢은 ‘정우’가 가리킨 특정 책, ㉣은 ‘○○ 서점’이다. ㉠, ㉡, ㉢은 화자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은 그렇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 ㉣ 모두 뒤에서 언급될 대상을 대신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 ㉢, ㉣ 모두 발화 현장에서 화자나 청자를 대신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 ㉢, ㉣ 모두 화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담화의 기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건우’, ‘아버지’, ‘할아버지’ 세 명의 대화에서 ㉠과 ㉢은 모두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은 화자인 ‘아버지’

와 청자인 '할아버지'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이고, ㉠은 화자인 '건우'와 청자인 '할아버지'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도 않고, 화자와 청자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다.
- ③ ㉠과 ㉢은 모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과 ㉣은 모두 '건우'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로,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에서 화자는 '할아버지'이고, 청자는 '건우'이며, ㉣에서 화자는 '건우'이고, 청자는 '할아버지'이다.
- ⑤ ㉢과 ㉤은 모두 '건우'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05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기양양해하며'를 고려할 때 '다음에는 선행상을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겠습니다.'에는 겸손함을 나타내거나 남에게 양보할 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겸양 표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칭찬에 감사하게 여기며'를 고려할 때 '운이 좋아서 문제가 잘 풀렸어요.'는 겸양 표현에 해당한다.
- ② '진수성찬을 내놓으며'를 고려할 때 '차린 게 없어 송구합니다.'는 겸양 표현에 해당한다.
- ④ '맛이 없었다고 느끼며'를 고려할 때 '오후 늦게 간식을 많이 먹어서인지 입맛이 없네요.'는 완곡 표현에 해당한다.
- 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를 고려할 때 '오늘 몸이 별로 안 좋네.'는 완곡 표현에 해당한다.

06 담화의 기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그게'는 앞에서 언급된 '그 소문', '학교 축제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고, ㉡ '그거'는 앞에서 언급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이 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두 표현 모두 앞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 ㉢ '그 소문'은 뒤에서 언급될 학교 축제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고, ㉣ '이건'은 뒤에서 언급될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이 오는 것

과 관련된 것이다. 두 표현 모두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09 언어		본문 88~93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②		

01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돌괴'는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닐거'는 현대 국어의 '읽어'에 대응한다. 지금과 달리 연음을 반영하여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현대 국어의 '읽-'과 마찬가지로 중성에 'ㅁ'을 가진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현대 국어 '나무'에 대응하는 단어는 '남'으로 나타난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서 연음이 일어나 '남근'으로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 ③ ㉢에서 현대 국어 '길'에 대응하는 단어는 '궐'로 나타난다. '궐'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서 연음이 일어나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 ⑤ ㉤은 연음을 반영하여 이어 적기를 한 것으로 '므레너굴'에 조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의'는 현대 국어에도 존재한다.

02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노피'와 '너비'는 각각 현대 국어의 '높이'와 '너비'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의 '높이'와 '너비'에는 공통적으로 접사 '-이'가 쓰였지만, '노피'와 '너비'에는 각각 접사 '-ㅍ'와 '-ㅂ'가 결합했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일어났던 모음 조화 때문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접사 모두 명사를 만든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세 국어 '노피'는 '높-'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 ② '노피'와 '높이'는 모두 용언 어간 '높-'이 어근인 파생어이다.
- ④ '걸음을 걸음'에서 앞의 '걸음'의 '-음'은 명사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뒤의 '걸음'은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기

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걸음’은 여전히 서술어의 기능을 하여, 앞의 ‘걸음을’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의 ‘거름 거루미’에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음’이고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어미는 ‘-음’임을 알 수 있다.

03 음운의 변천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ㄷ’이 ‘ㄴ’보다 먼저 사라졌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ㄴ’은 2음절 이하의 ‘ㄴ’부터 ‘ㄴ’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ㄱ술’에서 ‘ㅎ’이 가장 먼저 소실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이후에 ‘ㄱ술, ㄱ을, ㄱ을’ 등의 표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중에서 ‘ㄷ’과 2음절의 ‘ㄴ’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ㄱ을’이 가장 후대의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2음절 이하의 ‘ㄴ’부터 변화하였으므로, ‘가을’은 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 ③ 2음절 이하의 ‘ㄴ’부터 변화하였으므로, ‘가을’은 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 ④ ‘ㄷ’이 ‘ㄴ’보다 먼저 사라졌다고 가정하였으므로 ‘ㄱ술’은 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 ⑤ ‘ㄷ’이 ‘ㄴ’보다 먼저 사라졌다고 가정하였으므로, ‘ㄱ술’은 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또한 2음절 이하의 ‘ㄴ’부터 변화하였으므로, ‘가을’도 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04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잇-’은 어간이고 ‘-더-’는 어미이므로 ㉠에는 의문형 어미가 와야 자연스럽게. 의문사 ‘므슴’이 있는 설명 의문문이므로 의문형 어미 ‘-뇨’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므스’는 대명사이면서 의문사이므로, ‘므스’ 뒤에 결합하는 ㉡에는 의문 보조사 ‘고’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배’는 뒤에 오는 ‘이셔도’의 주어이다.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배’로 나타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세 국어에는 관형격 조사 ‘ㅅ’이 존재하였다. ‘나랏’은 ‘나

랏’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형어이다. 뒤에 오는 ‘말씀’을 꾸며 준다.

② ‘中囯國’에는 ‘中囯國’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어이다.

④ ‘쁘들’은 ‘쁘’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목적어이다.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⑤ ‘노미’는 ‘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어이다.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06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내’는 현대 국어의 ‘내가’에 대응하는데, ‘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바’에서 술격 조사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나’, ‘바’는 형태 변화 없이 조사와 결합하는 단어이므로 불변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새’는 홀로 쓰여도 ‘새’로 나타나고, ‘새와’처럼 조사와 결합하여도 ‘새’로 나타나 형태가 일정하다.
- ③ ‘비호다’는 현대 국어의 ‘배우다’와 대응한다. 무엇을 배우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새’가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모르다’는 현대 국어의 ‘모르다’와 대응한다. 무엇을 모르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나를’이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다.
- ⑤ ‘새’는 홀로 쓰이면서 현대 국어의 ‘새것’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로만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0 언어	본문 94~96쪽
01 ③	02 ②
05 ②	03 ④
	04 ④

01 관계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교에서 강당이 제일 크다.’에서는 ‘강당이’가 주어이고, ‘학교에서’는 부사어이다. ‘학교에서’의 ‘에서’는 체언에 붙은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희들'은 이인칭 대명사 '너희'에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이 결합한 말이다. 문장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 ② 문장에서 '준호는'은 '준호'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 보조사를 주격 조사 '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준호는'은 주어로 볼 수 있다.
- ④ 문장에서 '승주만'은 '승주'에 보조사 '만'과 주격 조사 '이'가 함께 쓰여 주어가 되었다.
- ⑤ 문장에서 '주셨습니다'의 주체는 '이모'이다.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셨습니다'에 '-시-'가 결합해 있으므로 '이모'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유지한다.

02 관계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에서 주어는 '새 친구'이며, 여기서 '가'는 체언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에서 '이'는 체언 뒤에 결합한 것으로 '어느 곳'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③에서 '이'는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 '먹다'의 목적어 뒤에 결합한 것이다. ④에서 '가'는 연결 어미 '-지' 뒤에 결합한 것이며, ⑤에서 '가'는 부사어 뒤에 결합한 것이다. 이들에서 '이/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03 국어사전 정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로 보아 '가까이[1]'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진 다의어이다. 중심 의미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주변 의미인 「2」에서는 의미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그 의미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3」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나 상태'와 관련하여 추상적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까이'와 '멀리'는 모두 부사와 명사의 두 품사로 쓰인다.
- ②, ③ '가까이'와 '멀리'가 명사로 쓰이면, 두 단어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는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
- ⑤ '멀리[1]'은 부사로, '한 시점에서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의 뜻을 가진다. '우리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했다.'는 '서울을 기준으로 거리가 몹

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예문이라 할 수 있다.

04 표준 발음법 - 음의 동화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끓는'은 '끓-'에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그런데 'ㅈ, ㅊ'과 같은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이 되므로 뒤에 비음이 올 때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면서, 'ㄱ'이 대표음 'ㄴ'으로 바뀌면서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 ③, ⑤ 겹받침 'ㅈ'에서 'ㄱ'이 탈락한 후, 겹받침 'ㅊ'에서 'ㅈ'이 탈락한 후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05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담화의 맥락으로 보아 ⑥는 '하영'이 말하는 '여기'와 동일한 장소인 '가까이 있는 풀밭'을 가리키므로, 청자의 이전 발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⑦는 '하영'이 말한 '야트막한 언덕'을 가리키므로, 이 역시 청자의 이전 발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기'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거기'는 청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와 ㉡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
- ③ ㉢는 '소나무들이 서 있는', '야트막한 언덕'을 가리킨다. '하영'이 '그래, 거기.'라고 하였으므로 ㉣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④ ㉤의 '접때'는 '오래지 아니한 과거의 어느 때'를 이르는 말이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는 '하영'이 '어릴 때'를 가리킨다.
- ⑤ ㉦는 '하영'과 '가은'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십 년 후'를 가리킨다.

11 언어 본문 97~99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1 형태에 관한 조항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따-+-아 → 따’, ‘따-+-았-+-다 → 따다’는 한글 맞춤법 제34항이 적용된 예이다. 이를 볼 때 다른 형태의 모음이 연속될 때에는 제34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34항의 [붙임 1]이 동일한 형태의 모음이 연속될 때에만 적용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젓-+-어’, ‘젓-+-었-+-다’는 모두 모음이 줄어든 형태로 적지 않는다. 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저’, ‘*졌다’와 같은 형태로 적지 않는다. 그리고 ‘따-+-아’, ‘따-+-았-+-다’는 모두 줄어든 형태로 적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따아’, ‘*따았다’와 같은 형태로 적지 않는다.
- ② ‘병이 나왔고’와 ‘죽을 저었고’에서 ‘났다’와 ‘젓다’는 모두 활용할 때 어간에서 ‘시’가 줄어드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간에 원래 자음 ‘시’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ㅅ/ㅆ’가 줄어들지 않는다.
- ③ 모음 ‘ㅏ’로 끝난 어간에 ‘-아’가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언의 어간 ‘가-’에 연결 어미 ‘-아’를 결합할 경우, ‘가’로만 적어야 한다.
- ⑤ 제34항에서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한 것은 항상 줄어든 형태로 적는다는 뜻이고, 제34항의 [붙임 1]에서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한 것은 줄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02 형태에 관한 조항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의 (큰길을) 건너-+-어’, ㅁ의 (학교에) 가-+-았-+-고’는 모두 제34항의 적용을 받는다.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결합할 때는 ‘ㅏ/ㅑ’가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너’, ‘갔고’와 같이 두 모음이 하나로 줄어든 형태로만 적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의 (상표를) 떼-+-어’는 ‘ㄱ’ 뒤에 ‘-어’가 어울려 줄어든 경우에만 준 대로 적는다. 또한 ㄴ의 (도로가) 패-+-어’는 모음이 줄어들어서 ‘ㅌ’가 된 경우여서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ㄹ의 (숫자를) 세-+-었-+-고’는 ‘ㄱ’ 뒤에 ‘-었-’이 어울려 줄어든 경우에만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ㄱ, ㄴ, ㄹ은 모두 항상 모음이 줄어든 형태로만 적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은 ‘ㄴ’ 첨가이고, c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ㄴ’ 첨가의 경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할 때 일어나지만, ‘숨이불’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구개음화의 경우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만나는 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여야만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통약[두통냐]’은 ‘두통+약’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한여름[한너름]’은 ‘한-+여름’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두 단어 모두에서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② ‘국밥[국뽕]’은 ‘ㅂ’이 ‘ㅃ’으로, ‘민지[민찌]’는 ‘ㅈ’이 ‘ㅉ’으로, ‘춥고[춥꼬]’는 ‘ㄱ’이 ‘ㅋ’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경음화)가 일어난다.
- ③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에 변화가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지만, 된소리되기(경음화)는 그렇지 않다.
- ④ ‘ㄴ’ 첨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 음운의 전체 개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된소리되기(경음화)와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음운의 전체 개수가 동일하다.

04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다.’와 같이 용언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심정지 환자가 병실로 옮았다.’가 되는데,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 ②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는 주동문으로 바꾸면 ‘아이가 젖을 물었다.’가 되어 서술어의 자릿수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줄어든다.
- ③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를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게 했다.’로 바꿀 수 있다.
- ⑤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와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의 서술어에는 동일한 형태의 접사 ‘-기-’가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후자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05 국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스시'는 '스시 > 스이 > 사이'로 변화한다. 이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ㅎ 물며'는 'ㅎ 물며 > ㅎ 물며 > 하 물며 > 하 물며'로, 'ㅁ 르치다'는 'ㅁ 르치다 > ㅁ 르치다 > 가 르치다'로 변화한다. 이는 'ㅎ 물며'와 'ㅁ 르치다' 모두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ㅡ'로 변화한 뒤,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12 언어		본문 100~103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덥다'의 활용형이 모두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덥고[덥:고]'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ㄱ, ㄷ, ㅂ' 뒤에 예사소리가 오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터워[터워:]'와 같은 형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서 형태소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므로 음운 변동이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국도', '집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은 'ㄱ, ㄷ, ㅂ' 뒤에 예사소리가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음의 배열만 파악해도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 ④ 현대 국어에서 용언의 기본형만 비교해서는 불규칙한 형태 변화를 알아낼 수 없다. 예를 들어, '입다, 줍다, 집다, 줍다'는 모두 기본형으로 어간이 'ㅂ'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줍다'만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⑤ 'ㅁ', 'ㅅ'이 소실되는 음운의 역사적인 변화 때문에 불규칙

적인 형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음운의 역사적인 변화도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짓다, 잇다'와 같은 'ㅅ' 불규칙 용언들도 중세 국어 시기에는 종성에 'ㄷ'을 가진 단어로 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이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짓더니, 지스니'는 연음이 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규칙적인 형태 변화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형태소를 '촛-'으로 파악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연음이 되어 '촛자'로 나타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종성의 제약이 작용하여, '촛고'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종성 자리에 'ㅅ'이 오면 'ㄷ'으로 변하는 음운 변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촛-'을 형태소로 잡고, 발음에서 관찰되는 형태 [촛]은 음운 변동을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차지]은 'ㅅ'이 연음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형태소를 '침-'으로 파악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연음이 되어 '침비'로 나타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종성의 제약이 작용하여, '침드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⑤ '짓-'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나 [지스니]로 발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지으니]로 발음되므로 예측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씻-'에 '-으니'가 붙으면 '씻으니[씨스니]'로 발음되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03 파생어의 형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뫼-'과 '-꾼' 모두 명사인 어근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에서 접사 '-꾼'이 붙은 어근은 모두 명사이다. 그러나 (다)에서 '-이'가 붙은 어근은 형용사 어간, 동사 어간, 부사로서, '-이'가 다양한 품사에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접사 '-꾼'이 붙은 단어는 모두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덜렁이’는 사람, ‘몰이’는 행위나 사람이지만 ‘높이’는 사람도 행위도 아니다.

④ (다)에서 어근 ‘높-’, ‘몰-’은 용언의 어간, ‘덜렁’은 부사이다. 이 어근들에 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라)에서 접사 ‘-이-’는 동사 어간인 어근에 결합하여 다시 동사를 만든다.

⑤ (마)에서 ‘끓이다’, ‘녹이다’, ‘줄이다’는 사동사로서 각각 ‘끓다’, ‘녹다’, ‘줄다’와 비교하면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라)에서 ‘-이-’는 피동사를 만든다.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문장 성분의 개수는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다.

04 선어말 어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마)의 ‘-겠-’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여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데에 ‘-ㄴ-’이 사용되었다.
- ②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을 나타내는 데에 ‘-ㄴ-’이 사용되었다.
- ③ 음식점 운영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데에 ‘-ㄴ-’이 사용되었다.
- ④ 화자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데에 ‘-겠-’이 사용되었다.

05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은 ‘영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를 의미하므로 ‘영호’ 외에는 ㉠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화 참가자 모두 동아리 회장이므로 ㉠에 포함된다.
- ③ ㉡은 ‘영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를 의미하므로 ‘서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은 ‘영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이고, ㉢은 ‘서준’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를 나타내는 데에 쓴 것이므로,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 ⑤ ‘우영’이 ‘서준’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에는 ‘서준’이 포함된다.

06 문장의 짜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의 관형사절 ‘내가 그때 본’에는 서술어 ‘보다’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반면에 (라)의 관형사절 ‘김 씨가 다리를 다쳤다’에는 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마)에는 명사절 ‘버스가 얼른 오기’만 있고, 서술절은 없다.
- ② (라)에서 부사어는 ‘얼른’이고 부사이다. 부사절은 없다.
- ③ (나)에도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있다. 명사인 ‘문법’이 ‘실력’을 꾸미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⑤ (라)에서 소식을 들은 것이 사고 현장으로 간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앞 절의 사건과 뒤 절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13	언어	본문 104~107쪽
01 ⑤	02 ④	03 ①
05 ⑤		04 ③

01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따르면 ‘달리기’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로,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달리기’를 어근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를 합성어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해당하는 예로 ‘산’과 ‘짐승’으로 구성된 단어와 ‘들’과 ‘짐승’으로 구성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구성 요소가 ‘유리’와 ‘창’으로 같으나 그 배열이 ‘유리창’과 ‘창유리’로 다르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구성 요소가 ‘위’와 ‘아래’로 같은 경우 그 배열이 ‘위아래’이든 ‘아래위’이든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큰부리새’는 ‘큰 부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큰부리’와 ‘새’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큰가슴근’은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큰’과 ‘가슴근’으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④ ㉔과 같이 단어를 분석할 때, ‘줄넘기’는 ‘줄을 넘는’이 ‘행위’를 수식하는 의미 구조를 가지므로 [[줄넘기]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02 단어의 분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코웃음’은 ‘코’, ‘웃-’, ‘-음’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코’와 ‘웃음’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뜨개질’은 ‘뜨-’, ‘-개’, ‘-질’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뜨개’와 ‘-질’이며 ‘-질’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갈비찜’은 ‘갈비’, ‘찌-’, ‘-ㅁ’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갈비’와 ‘찜’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잠꾸러기’는 ‘자-’, ‘-ㅁ’, ‘-꾸러기’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잠’과 ‘-꾸러기’이며 ‘-꾸러기’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놀이터’는 직접 구성 성분이 ‘놀이’와 ‘터’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민물고기’는 직접 구성 성분이 ‘민물’과 ‘고기’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 ② ‘살얼음’은 직접 구성 성분이 ‘살-’과 ‘얼음’이며, ‘살-’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오르막길’은 직접 구성 성분이 ‘오르막’과 ‘길’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 ③ ‘싸움꾼’은 직접 구성 성분이 ‘싸움’과 ‘-꾼’이며, ‘-꾼’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햇밭질’은 직접 구성 성분이 ‘햇밭’과 ‘-질’이며 ‘-질’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 ⑤ ‘거짓말쟁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거짓말’과 ‘-쟁이’이며, ‘-쟁이’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돈벌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돈’과 ‘벌이’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03 교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을’과 ‘이’는 둘 다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팔을’이 [파들]로, ‘팔이’가 [파치]로 발음되는 것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㉑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꽃이’는 [꼬치]로, ‘꽃잎이’는 [꼐니피]로 발음되는 것은 ‘꽃’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가 ‘이’라는 형식 형태소인지, ‘잎’이라는 실질 형태소인지에 따라 연음이 일어날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지 달라지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곧이’는 [고지]로,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되는 것은 ‘곧’

답 ④

답 ①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가 ‘-이’라는 형식 형태소인지, ‘잇-’이라는 실질 형태소인지에 따라 구개음화가 적용될지 연음이 일어날지 달라지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뜻이야’는 [뜨시야]로, ‘뜻있는’은 [뜨딘는]으로 발음되는 것은 ‘뜻’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가 ‘이야’라는 형식 형태소인지, ‘잇-’이라는 실질 형태소인지에 따라 연음이 일어날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지 달라지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값있어’는 [가비써]로, ‘값을’는 [갑쓸]로 발음되는 것은 ‘값’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가 ‘있-’이라는 실질 형태소인지, ‘을’이라는 형식 형태소인지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될지 연음이 일어날지 달라지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못’ 부정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별로 편안하지 못한’의 ‘못한’은 동사로 된 분용언 뒤에 쓰인 것이 아니며, 이때 ‘못하다’는 형용사 ‘편안하다’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므로 ㉑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㉑의 예로는 ‘저희 모두는 그 일에 협조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못하다’가 동사 ‘있다’가 뜻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다.
- ② ‘못하다’가 동사 ‘수입하다’가 뜻하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못하다’가 형용사 ‘옳다’가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다.
- ⑤ ‘못하다’가 형용사 ‘고프다’가 뜻하는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상해 사람미 효되라(이 보통 사람의 효도이다)’의 ‘효되라’는 ‘효도 + |라’로 분석되는데, 체언의 끝소리가 ‘ㄱ’여서 ‘|’가 결합한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ㄱ’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시내에 사는(이 시내에 사는)’의 ‘시내에는’은 ‘시내 + 예’

로, 부사격 조사로 ‘예’가 결합한 것을 통해 ‘시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② ‘저고맛 時節 디내음돌흔(조그만 시절을 지냄은)’의 ‘디내음’은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나 ‘디내음’이 아니라 ‘디내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디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③ ‘형테 사괴요몰(형제와 사귄을)’의 ‘사괴요’은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나 ‘사괴요’이 아니라 ‘사괴요’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사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④ ‘金剛은 쇠에서 난(금강은 쇠에서 난)’의 ‘쇠에서’는 ‘쇠+에서’로, 부사격 조사로 ‘에서’가 결합한 것을 통해 ‘쇠’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14 언어 본문 108~110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③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㉟는 겹받침 ‘ㅃ’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아’가 와서 자음 ‘ㅃ’이 연음되었다.

㉠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 ‘ㄱ’이 ‘-’으로 바뀐 경우이다. 이어지는 어미 ‘-지’의 초성 ‘ㄷ’은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는 겹받침 ‘ㅃ’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지 않아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였다.

㉢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연음되었다.

㉣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 ‘ㅎ’이 탈락하였다.

02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이하’, ‘보오리’는 중세 국어에서 연구개 비음 ‘h’이 초성에 올 수 있는 경우를 보여 준다. 이는 한 단어 내부의 초성에서 발음된 연구개 비음 ‘h’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스

스울’은 ‘스승’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초성에 연구개 비음 ‘h’이 온 것은, ‘스승’의 종성에 있던 연구개 비음 ‘h’이 다음 음절에 연음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성에서 연구개 비음 ‘h’이 발음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밭’, ‘뽕’, ‘뽕다’에서 초성에 오는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의 ‘벗디’와 ‘벗과’에서 종성에서 발음된 ‘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웁디’, ‘뭉도다’에서 종성에 오는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스스울’은 ‘스승’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스스이’는 ‘스승’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로, 초성에 연구개 비음 ‘h’이 왔다.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스승’의 종성에 있던 연구개 비음 ‘h’이 다음 음절에 연음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03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는 명사절로 안겨 있고,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성분인 목적어 기능을 한다. ㉣와 ㉤는 관형사절로 안겨 있고, 부속 성분인 관형어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명사형 어미 ‘-음’이, ㉢와 ㉤는 명사형 어미 ‘-기’가, ㉣는 관형사형 어미 ‘-니’이, ㉤는 관형사형 어미 ‘-리’이 각각 결합하여 안긴절이 되었다.

② ㉡는 명사형 어미 ‘-음’이, ㉢와 ㉤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되어 있는 명사절이다.

④ 명사절 ㉤는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관형사절 ㉡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관형사절 ㉢는 ‘예정’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⑤ ㉡는 명사절로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목적어로, ㉢는 명사절로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04 어말 어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후에는 날이 개니 외출하기에 좋겠구나.’의 ‘ 좋겠구나’에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해 있다. ‘개니’에

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 ‘-니’가 결합해 있고, ‘외출하기에’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형사형 어미 ‘-은(심은)’과 종결 어미 ‘-란다(동백꽃이란 다)’를 찾을 수 있다.
- ② 관형사형 어미 ‘-ㄴ(바쁜)’과 부사형 어미 ‘-게(늦게)’, 종결 어미 ‘-지(오겠지)’를 찾을 수 있다.
- ④ 연결 어미 ‘-고(보고)’와 종결 어미 ‘-여라(하여라)’를 찾을 수 있다.
- ⑤ 연결 어미 ‘-는데(출발했는데)’와 종결 어미 ‘-을까(도착했을까)’를 찾을 수 있다.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05 파생어의 형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뒤-’는 ‘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거나,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뒤섞다’는 접두사 ‘뒤-’가 동사의 어근 ‘섞-’에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이때 접두사 ‘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벼’에 접사 ‘-을’이 붙은 ‘올벼’는 원래의 품사인 명사를 유지한다.
- ② 명사 ‘힘’에 접사 ‘-껏’이 붙어서 품사가 부사로 바뀌었다.
- ④ ‘담다’의 어근에 접사 ‘-기’가 붙은 ‘담기다’는 피동사로 문장의 구조를 바꾼다.
- ⑤ ‘높다’의 어근에 접사 ‘-이’가 붙은 ‘높이다’는 사동사로, 형용사가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며 문장의 구조도 바꾼다.

15 언어

본문 111~11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1 국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곧아서(곧-+아서)’는 어미의 첫째 음절의 모음만 모음 조화를 따랐다. 하지만 ‘떡어서(떡-+어서)’는 어미의 전체 음절의 모음이 모음 조화를 따랐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ㄴ, ㄷ, ㄹ’는 설소축에 속하는 모음이고, ‘ㅏ, ㅑ, ㅓ’는 설축에 속하는 모음이다. ‘우물(ㅜ+을)’은 설소축에 속하는 모음 ‘ㅜ’와 ‘ㄱ’, ‘말씀’은 설축에 속하는 모음 ‘ㅓ’와 ‘ㅍ’가 어울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② 15세기 국어의 ‘오늘’은 현대 국어의 ‘오늘’로 변화하며,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된다. ‘오늘’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지만, ‘오늘’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이다.
- ③ ‘꿀꺽’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양성 모음 ‘ㅓ’와 ‘ㅓ’가, ‘꿀꺽’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음성 모음 ‘ㅜ’와 ‘ㄹ’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 ④ ‘사슴’은 형태소 내부에서 ‘ㅓ’와 ‘ㅓ’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고, ‘가는(가-+는)’은 형태소의 결합에서 ‘ㅓ’와 ‘ㅓ’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02 음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뽀득: 뽀득’, ‘도탑-: 두탑-’, ‘뽀양-: 뽀영-’은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작용한 말이다. 또한 ‘알록: 얼룩’, ‘파랑-: 퍼렁-’과 같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이 나타나는 말의 쌍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깡충: 쨍충’은 양성 모음 ‘ㅓ’와 음성 모음 ‘ㄹ’의 대립이 나타나는 말의 쌍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깡충’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03 문장의 짜임과 활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형이 축구를 하면 웃는다.’는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가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이어져 있다.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웃는 형이 축구를 한다.’는 ‘웃는’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형이 웃는다.’가 명사절로 쓰이지 않았다.
- ② ‘형이 축구를 해서 웃는다.’는 연결 어미 ‘-아서’가 활용된 문장이다. ‘형이 축구를 한다.’가 서술절로 쓰이지 않았다.
- ③ ‘축구를 하는 형이 웃는다.’는 ‘축구를 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형이 웃는다.’가 관형사절로 쓰이지 않았다.

⑤ '형이 축구를 하니까 웃는다.'는 '-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인 '-니까'가 활용된 문장이다.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아니다.

04 파생어의 형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되묻는'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 '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선잡'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 '선-'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③ '햇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 '햇-'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④ '높일'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 '-이-'는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꾸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⑤ '놀이꾼'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 '-꾼'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05 국어사전 정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싹-하다'는 수정 후에 [Ⅱ]「형용사」[...이] 몫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로 쓰이는 문형 정보와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3'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②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 강구함.'에서 '~강구하거나 실행함. 또는 그런 조치나 방법.'으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 짜는 일.'에서 '~ 강구하거나 실행함.'으로 수정하였다.

③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중 '3'((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삭제하였다.

⑤ 뜻풀이에서 성별과 관련된 부분인 '주로 여성이'를 삭제하였다.

01 매체 분문 116~124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 정보를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거나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일 형식은 'pdf'로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선택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응모하기 (바로 가기)' 메뉴를 제공하여, 포스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댓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점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이에 대해 담당자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3기 대학생 온라인 나눔 공부방'과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여, '대학생 온라인 나눔 공부방'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검색 메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02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미영'은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여 자신이 만든 시각 자료를 회의 참여자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면을 공유했다고 해서 회의 참여자들이 시각 자료를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영현’은 회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회의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를 녹화하였다.
- ② ‘미영’은 대화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없애기 위해 ‘지호’에게 외장 스피커 음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③ ‘은형’은 지저분한 자신의 방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배경 화면의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카페 이미지의 배경 화면을 사용하였다.
- ⑤ ‘지호’는 포스터 시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인 ‘○○시 교육청 로고’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미영’에게 전송하였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말풍선 이미지를 사용해 전달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그리고 ‘영현’은 대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므로, 말풍선에 담긴 내용은 영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나의 학습 모듈을 구성하는 인원수를 표현하기 위해 대학생 한 사람과 고등학생 세 사람을 그린 각각의 그림을 포스터에 제시했다. 이것은 ‘은형’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②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연결해 주는 교육청의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연결해 주는 이미지를 포스터에 제시했다. 이것은 ‘지호’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③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을 알리기 위해 ○○시 교육청의 로고 이미지를 포스터 하단에 제시했다. 이것은 ‘영현’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⑤ 사업의 취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사교육에는 의존하지 않고 방과 후 학습은 더 알차게’라는 문구를 만들어 포스터 상단에 제시했다. 이것은 ‘지호’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04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회원의 등급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활동 규칙 1’을 보면, 정회원은 카페 활동에 제약이 없으나 준회원은 읽기만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의 등급을 둘로 나누

어 게시물의 열람이 가능한 범위를 달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설 목적’에서 밝힌 내용을 고려하여 컴퓨터 동호회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컴퓨터 동호회’와 같이 활동 주체와 활동 목적을 ㉠에 제시하였다.
- ③ 컴퓨터 관련 정보와 비평을 위한 게시물을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게시하라는 ‘활동 규칙 2’를 고려하여 ㉡에는 체계적으로 항목화한 게시판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④ ‘활동 규칙 3’에서 밝힌 내용을 고려하여 카페 운영의 윤리 지침을 어긴 회원이나 게시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공지글 형식으로 ㉢에 제시하였다.
- ⑤ ‘활동 규칙 3’의 내용을 고려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게시글을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했음을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민서’와 ‘준서’는 모두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두 사람 모두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연’은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유럽 여행 일정을 손쉽게 얻은 경험을 근거로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② ‘윤석’은 자신이 일주일에 걸쳐 한 코딩 작업을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가 단 1분 만에 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였다.
- ③ ‘창윤’은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가 산출한 결과물로 과제를 제출했으나,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 나쁜 점수를 받았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④ ‘윤석’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창윤’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대화형 인공 지능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02 매체 본문 125~13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자책의 메모 기능은 쓰기도 쉬우며 수정할 수도, 쉽게 삭제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 ㉠의 메모는 하이라이트로 강조한 문장을 읽고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특정 청중에 대해 적어 놓은 것으로,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관련된 다른 자료가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즐겨찾기 목록은 전자책 내용 중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
- ②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통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강조 표시인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 ⑤ 검색 기능을 통해 해당 책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 참고할 수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청중은 인문학 계열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알 수 있으며, (나)에는 청중의 관심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 3'에서 인문학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배경지식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렇지만 '메모 3'에서의 설문 조사와 분석 내용이 진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청중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제시된 화면 구성 방식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모든 참가자들은 점심 방송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 공모전의 주제를 정한 후 영상 제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교내 라디오 방송으로, '순간'이라는 단어를 통한 연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상반된 관점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진행자의 일방향적인 멘트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나)에서는 시각 자료인 그림 기호가 사용되고 있지만, 청각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서는 정보 전달자 및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이번 대화가 끝난 후 각자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새로 적어야 할 것에 대해 대화하자며 추후에 논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특수 문자를 통해 상대의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방에 새로 참가한 민수를 위해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점심 방송에서 언급된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온 순간들로 영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투표함을 만든다면서 투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대화에서는 대화 참가자들이 모두 하나씩의 영상 제목을 말했다고, 최종 제목은 대화에서 언급한 세 개의 제목 중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영상의 제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는 영상의 제목이 아니라 점심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이 멘트를 참고하여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첫 화면을 고등학생인 현재의 모습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책을 뒤에서 앞으로 넘기는 것처럼 해서 갓난아이의 모습을 보여 준 후,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이의 성장을 보여 주는 거야.'라는 대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해 이전 화면을 밀어내면서 다음 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라는 대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④ '화면을 분할하여 주 화면은 아이의 모습, 보조 화면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구성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라는 대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모님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면 아이와 부모님을 함께 배치한 우리의 의도가 잘 드러날 것 같지 않니?'라는 대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03 매체 본문 132~138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1 정보 구성 언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목록이 안내된 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시장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변화 전후의 모습을 화면에 제시하고 있지만, 공연 출연진과의 인터뷰 장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보부상과 관련된 시청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 체험단원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 방문객의 반응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자료를 삽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장의 변경된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장과 기자와의 대화가 아닌 시장 상인회장이 ○○시장 축제 개최식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2는 매체에서 인용한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제작사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으나, 자료의 전체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뉴스 보도에서 ○○시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27일에 ○○시장이 열리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에 자막을 추가하여 복합 양식(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④ 시청자 4는 뉴스 보도에 언급된 축제 안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 ⑤ 시청자 5는 뉴스 보도에 담긴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보도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보기 영상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도에서는 기자가 보부상놀이 공연, 공예품 만들기 체험, 줄타기 체험, 먹거리 장터 등 ○○시장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안내 자료에서는 진행 순서가 아니라 '공연, 체험, 시장'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도에서는 기자가 방문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있으나, 안내 자료에는 약도를 활용하여 공영 주차장의 구체적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 ② 보도에서 '상인회장'이 언급한 운영 방식의 변경 시기에 대해, 안내 자료에는 3월 말까지 오일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4월 1일부터 주말 시장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 ④ 보도에서는 ○○시장 축제의 운영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안내 자료에는 ○○시장 축제의 운영 시간을 '09:00~21:00'로 명시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⑤ 보도에서는 ○○시장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내 자료에는 QR 코드를 첨부하여 이를 스마트 기기로 스캔하면 ○○시장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04 정보 구성 언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문헌 자료인 『자산어보』에는 거북손의 다른 이름인 오봉호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거북손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만, 거북손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 순서가 표시된 자막을 제시하여 방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거북손과 보말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여 거북손의 모양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거북손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여 거북손을 활용한 음식의 조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거북손 채취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여 거북손 채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5 사회적 사고 작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C]에서 진행자는 거북손을 채취할 때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진행자는 시청자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질문을 통해 점검하였고, 진행자의 얼굴이 잘 안 보인다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있다.
- ② [B]에서 진행자는 거북손이 식물인지, 동물인지를 묻는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갑각류라는 정보 외에 맛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④ [D]에서 거북손은 반드시 해감을 해야 한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시청자가 반드시 해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진행자는 추가적인 정보 검색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있다.
- ⑤ [E]에서 진행자는 시청자 퀴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다음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다섯 명의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언급을 통해 시청자들이 다음 방송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04 매체	본문 139~146쪽
01 ③	02 ④
05 ②	03 ④
04 ②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다섯 번째 발화 시에 ‘○○신문과 △△일보의 기사를 보니 해루질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일보의 기사 내용에 빠진 정보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며, 여러 신문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 시에 방송 주제와 관련된 이번 주의 사고 사례 및 관련 신문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방송의 내용이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두 번째 발화 시에 그래프를 활용해 기사의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세 번째 발화 시에 해루질 관련 사고 발생의 다른 이유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신문 기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갯골’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전문가는 네 번째 발화 시에 자신이 준비한 수치 자료를 활용하여 △△일보에서 다루고 있는 야간 해루질의 위험성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2’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질퍽질퍽한 갯벌에서는 평상시 자신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느려’진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갯벌에서 사람의 이동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자세히 알려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라며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해루질 관련 사고가 많이 늘었다는 통계는 믿

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겠죠?’라며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사의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청자 1’은 □□신문 기사에서 해루질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행정 기관의 사례를 빠짐없이 제시했는지 점검하고 있지 않다.

③ ‘시청자 2’는 해루질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진행자가 해루질 관련 사고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청자 3’은 ‘해루질 안전 지도’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해루질 안전 지도’를 만든 것은 빠른 구조 요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루질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03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 번째 카드에서는 갯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고립 사고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자가 네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갯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물에 빠지는 사고 한 가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첫 번째 카드에서는 해루질의 의미를 진행자가 첫 번째 발화에서 요즘에 널리 사용된다고 언급한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활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두 번째 카드에서는 전문가가 두 번째 발화에서 비교한 갯벌에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와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를 각각 시속 7~15km와 시속 4km라는 수치 자료를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③ 두 번째 카드에서는 전문가가 두 번째 발화에서 밀물의 속도감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자전거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⑤ 네 번째 카드에서는 전문가가 마지막 발화에서 언급한 해루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1문단에서는 ‘새벽 한 시까지 문을 여는 이런 약국’이라고 서술하는 문자 언어와 오른쪽에 제시된 달이 떠 있고 불이 켜진 약국 이미지를 통해서 공공 심야 약국이 야간에도 운영

된다는 점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밑줄 그은 내용은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해 본 결과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관한 것이다.

③ (가)에서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강조한 것은 공공 심야 약국을 이용해 본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이지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다.

④ (가)의 지도에 운영 예정인 공공 심야 약국과 운영 중인 공공 심야 약국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활용한 하이퍼링크는 지자체 정책 관련 글이 모여 있는 블로그 내의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블로그 글에서 인용한 시청 누리집의 보도 자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0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2]에서는, (가)의 2문단에서 언급된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 운영 규모를 약국 이미지로 화면에 표현하고 있지만, 각각의 구별로 운영될 공공 심야 약국의 수를 내레이션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구별로 운영되는 공공 심야 약국의 수는 [장면 3]의 화면과 내레이션을 통해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1에서는, (가)의 1문단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지원에,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 약사의 협조를 추가해서 화면과 내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장면 3에서는, (가)의 2문단에서 언급된 6개의 공공 심야 약국을 표로 목록화한 화면을 제시하면서 내레이션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④ 장면 4에서는, (가)의 3문단에서 언급된 시민들의 기대를 “가까운 곳에 생겨서 이용이 편리할 것 같다.”, “밤에 급하게 약국을 찾을 일이 많았는데 다행이다.”와 같이 구체화하여 화면에 말풍선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어울리는 밝고 희망찬 배경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⑤ 장면 5에서는, (가)의 4문단에서 언급된 노년층 대상 홍보 개선 방안의 효과를 등장인물의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는 화면의 변화와 무거운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는 배경 음악의 변화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05 매체 본문 147~153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와 (나)는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 자료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한 후에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사실 보도 위주로 작성된 기사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작성자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작성된 기사문으로,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 ③ (나)는 학생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카드 뉴스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 ④ (나)는 학생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특정하기 어려운 인물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없다.

02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4'에서 질문 문장의 글꼴과 답하는 문장의 글꼴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여 질문 문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은 동아리 홍보 전시회의 만족도를 높이는 해결 방안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문제의 원인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카드 1'에서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한 신입생의 비율은 어둡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생의 비율은 밝게 표현하여 시각화하였다. 이것은 (가)의 통계 자료에 담긴 신입생의 높은 행사 참여율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 ② '카드 2'에서 계기판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아리 홍보 전시회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과 홍보 전시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을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담긴 동아리 홍보 전시회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③ '카드 3'에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친편일률

적인 동아리 홍보 내용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가)의 학생(정 OO) 인터뷰에서 언급된 동아리 홍보 전시회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해당한다.

- ⑤ '카드 4'에 학생회장이 주먹을 쥐고 말하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가)의 학생회장 발화 속에 담긴 행사 지원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아리 홍보 전시회 개선을 위해 노력한 동아리에는 학생회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회의 동아리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카드 B'를 추가하면 동아리의 행사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동아리 홍보 전시회에 대한 신입생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드 A'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더라도 그 이유를 보여 줄 수는 없다.
 - ② (나)에는 동아리 홍보 전시회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제시되었을 뿐 동아리 홍보 전시회의 개선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나)에서 학생회가 동아리 활동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카드 B'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보여 줄 수 없다.
 - ④ (나)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각 동아리의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회의 참여자가 웹툰을 본 독자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온라인 화상 회의는 주최자에 의해 초대된 특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아리실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는 회의 참여자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내가 화면을 공유할 테니까 한번 읽어 봐 줄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는 회의 참여자가 자신의 화면을 전체 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아래를 클릭하면 ‘감사 전달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웹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4.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웹툰의 독자가 웹툰을 보고 느낀 만족감을 수치로 환산되는 기호, 즉 별점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 번째 장면을 보면 학생들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문구로 만들고 어울리는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평소에 학생들에게 강조한 내용인 ‘나눔’과 ‘배려’는 웹툰 속 문구로 담겨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선생님이 교직에 몸담았던 기간을 드러내기 위해 선생님이 교직을 시작하고 마치는 연도인 ‘1990년’과 ‘2024년’을 각각 나무 이미지 속에 넣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 제시하였다. ‘선생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 선생님 주변에 많은 학생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자라난 나무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는 선생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② 35년 동안 선생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 더 많은 학생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잎이 무성해진 나무와 그 나무 그늘에 모여서 쉬고 있는 학생들의 이미지를 두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에 제시하였다.

④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선생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네 번째 장면에 제시하였다.

⑤ 네 번째 장면에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말풍선에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선생님과 학생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트 이미지를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06 매체

본문 154~160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에 있는 기사의 등록 시간과 수정 시간을 통해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기사 아래의 그림 기호를 누른 횟수를 통해 후속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기사 아래의 그림 기호를 누른 횟수를 통해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용자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는 기사의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같은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정보와 관련된 심화 정보는 아니다.

⑤ 문자와 그림 등 복합 양식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청각과 관련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사의 마지막에 한국 관광 공사의 팀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빅 데이터 분석을 문화 관광 축제 전체로 확대하고 분석 모델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팀장은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민 화합 한마당 성격의 행사가 대부분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가 증가하였다.’라며 지역 축제의 변화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② ‘경복궁 별빛 야행, 대백제전 등의 전통 역사 유형, ▽▽ 청보리밭 축제, ◆◆ 나비 대축제 등의 생태 자연 유형, △△ 야생차 문화 축제, ☆☆ 용기 축제 등의 특산물 유형’ 등 구체적인 지역 축제들을 예로 들고 있다.

정답과 해설

- ④ 문화 관광 축제를 보여 주는 그림지도를 통해 지역 축제의 전국적인 운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축제 전후와 축제 기간의 일평균 카드 소비액을 대비한 그 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메모에서는 지역 축제 달력을 제시하면서 축제 참가를 권유하 는 자막으로 장면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영상 제작 계획에 ‘나만의 지역 축제 일정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자막이 배치되어 있지만, 지역 축제 달력이 아닌 지역 축제 관 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제시하는 장면이므로 ‘메 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사의 제목을 영상 제목으로 활용한다는 ‘메모’를 반영하 여 문화 관광 축제 지도를 보여 주면서 그 위에 영상 제목이 나타나도록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② 기사에서 언급한 다양한 축제 현장을 제시하고, ‘문화와 자 연, 사람이 어울리는 축제의 현장’이라는 지역 축제의 의미를 자막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메모’를 반영하여 지역 축제 현장을 보여 주면서 방문객과 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댓글에 나온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보여 주면서 지역 축제 참가의 의미를 자막으로 구성하고 있다.

04 정보 구성 언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진행되는 쇼핑계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기자 또한 최근의 건강 기능 식품 열풍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능성 원료와 관련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판단을 언급 하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이 뉴스의 정보를 구성하는 주체는 아니다.
- ② 정보 수용자와 관련된 고민과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수 용자가 정보 구성의 주체는 아니다.
- ④ 수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 ⑤ 인터뷰 영상은 건강 기능 식품 열풍이 20대에도 불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으로, 건강 기능 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광고의 대상이 되는 식품의 효과를 열거하면서 식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나타나 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에서는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건강 기능 식품을 ‘선물’에 비유하고 있으며, ‘자료’에는 ‘건강한 삶을 위 한 동반자’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③ ‘자료’는 자연에서 찾은 원료임을 강조하는 야채 및 과일의 그림 이미지와 기능성 원료들을 제시한 특정 용어를 보여 주 고 있다.
- ④ (나)는 섭취 전후의 모습을 대비시킨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 으며, ‘자료’는 건강 기능 식품 인정 마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신체 사이즈 변화, 체내 지방 세포 분해·배출, 요요 현상 없음, 혈관 청소, 노폐물 및 독소 배출 등의 긍정적 효과 를 열거하고 있다. ‘자료’는 질병을 치료하지는 않는다는 건강 기능 식품의 특성을 ‘약’과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7 매체	본문 161~167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3]을 보면, 『파우스트』, 『신곡』 등과 같은 책을 언급하 기 는 하였으나 인문학책을 사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을 보면, 방송 처음 화면에 프로그램명 자막을 제시 하고 배경 음악을 삽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면 2]를 보면, 연주자를 소개할 때 시청자가 이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장면 4]를 보면, 연주곡을 시청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라흐

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중 3번의 결선 실황 영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장면 5], [장면 6]을 보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자 게시판의 실시간 댓글 질문을 살펴본 후, '연주회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와 같이 진행자가 댓글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은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등을 읽은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경험이 「단테 소나타」와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은 사례를 제시하여 피아노 연주의 어려움을 시청자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조회 수 약 550만 회'라는 대략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결선 영상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㉒은 '연습 벌레'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연주자의 연습량이 많다는 정보를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③ ㉓은 스승에게 피아노를 배울 때의 일화를 활용하여 스승이 지향하는 음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청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⑤ ㉕은 '대회 결선 실황 중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어 보실까요?'와 같이 의문형 문장으로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여 시청자에게 연주 영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03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라흐마니노프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여 라흐마니노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준서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대화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모티브로 하는 곡을 찾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윤지의 첫 번째 발화, 준서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한글의 특정한 자음자를 활용하여 텔레비전 인터뷰를 본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준서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소개된 연주의 특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였을

을 알 수 있다.

⑤ 윤지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박스△의 또 다른 연주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텔레비전 인터뷰의 대상자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준서에게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출판사 서평을 보면, 책의 장점만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를 보면, 출판사 서평 역시 상업적 목적이 있는 광고이므로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출판사 서평에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를 보면, 리뷰 작성자의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나)를 보면, '사라가기'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를 고려한 장치가 있으며,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소비자의 구매를 고려하지 않은 책 소개만을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

④ (나)를 보면, 작가 정보와 책의 일부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의 리뷰를 보면, '이 책도 오늘부터 읽을 거예요.'와 같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의 리뷰도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이 리뷰에 포함된 구매자 총점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인터넷 광고가 지닌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책의 전체 디자인 중 표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인터넷 광고에서는 책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없다. 따라서 ㉑이 실물을 대신하여 책의 디자인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㉒은 방송에 추천 도서로 소개되었음을 밝혀 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의 책 광고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㉒이 인터넷 광고에서는 물론 다른 매체의 책 광고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㉔은 광고하고 있는 책을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다. 따라서 ㉔이 광고를 통해 자극된 구매 욕구를 즉각적인 구매 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은 간단한 어휘 목록을 통해 연관된 도서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㉔이 간단한 어휘 목록을 통해 연관된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8 매체 본문 168~173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①			

01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답사 영상에서 여러 장소를 소개하는 순서는 답사 일정에 따라 영상을 촬영한 순서에 따르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답사 영상 촬영의 담당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② 답사 영상 촬영 후의 편집 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답사 영상에 어울릴 만한 자막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자막의 형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답사 영상의 마무리 부분에서 동아리원의 이름을 자막으로 넣기로 하였지만, 동아리원의 소감 소개 영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B]에서 '학생 3'은 음악 파일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3'이 음악 파일을 활용하여 '학생 2'의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학생 1'은 '화상 회의의 링크 접속이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 순천만 생태 답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답사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었지?'와 같이 회의의 참석자가 회의에 모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2'는 'https://www.○○○.go.kr'과 같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④ [C]에서 '학생 1'은 '여기 찾아보니까 흑두루미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자료가 있네. 잠깐 내가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 줄까?'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화면으로 공유하였다. 그리고 '공유한 자료를 보면 순천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두루미 서식지라고 되어 있어.'와 같이 화면으로 공유한 내용을 회의의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⑤ [C]에서 '학생 2'는 '내가 1학기 수행 평가에서 답사르 협약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채팅 창으로 파일을 보내 볼게.'라고 하며 첨부 파일을 활용하여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순천만에는 약 110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내레이션은 ㉔이 아니라, ㉔에서 제시하기로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사계절에 따라 비발디의 「사계」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순천만이 생물종의 보고이며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지역임을 밝히는 내레이션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근접 촬영 방법으로 대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를 보면, 흑두루미에 대한 영상과 함께, 조류의 월동 및 서식지로서 갈대 군락의 가치를 내레이션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블루 문에 대한 천문과학관장의 설명을 보면, 블루 문은 실제 푸른빛을 띠고 있지 않으므로, 블루 문이 실제 푸른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㉔을 활용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기 월식에 대한 기자의 설명을 보면, 개기 월식이 벌어지는 조건을 밝히면서 개기 월식을 보여 주기 위해 ㉠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슈퍼 문에 대한 천문과학관장의 설명을 보면, 슈퍼 문이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블러드 문에 대한 천문과학관장의 설명을 보면, 블러드 문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맨눈으로 개기 월식, 슈퍼 문과 블루 문, 블러드 문을 관측할 수 있다는 기자의 설명을 보면, 맨눈으로도 우주 쇼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저처럼 달에 대해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를 보면, ‘시청자 1’은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시청자 2’는 슈퍼 문이 왜 달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14% 더 크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슈퍼 문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내용인지를 점검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시청자 3’은 블루 문이 포함된 영어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우주 쇼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개기 월식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시청자 4’는 개기 월식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으므로,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시청자 5’는 세 가지 모습의 달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방송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매체

본문 174~178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텔레비전 생방송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다음 방송의 시작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방송 시간을 놓친 시청자가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텔레비전 생방송의 출연자인 진행자와 전문가는 발화하는 문장을 해요체 또는 하십시오체로 끝맺고 있다. 대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자신의 첫 발화에서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방송 내용에 관한 질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자신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자율 주행 무인 택시가 교통 신호를 오인하는 동영상 자료가 재생된 이후 자료와 같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는 자신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방송 중간에 시청을 시작한 참여자가 딥 러닝 기술에 대해 문자 이전에 딥 러닝 기술에 관해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문가는 자신의 여덟 번째와 열 번째 발화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으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자신의 두 번째 발화에서 인공지능이 콘텐츠 추천을 해 주고, 운전을 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실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언급한 것이다.
- ② 진행자는 자신의 네 번째 발화에서 알고리즘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인간이 치밀하게 설계한 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 이어진 ‘시청자 4’의 채팅 직후

전문가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딥 러닝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는 진행자가 화제와 관련한 개념인 알고리즘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언급하여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진행자는 자신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실시간 채팅을 확인하며 직전에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바로 전의 전문가의 말씀을 알기 힘들다는 시청자 채팅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이 이해를 어려워할 만한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전문가는 자신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구별하는 경우를 들어 딥 러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진행자의 추가 설명 요청에 시청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6'은 앞서 '시청자 2'가 했던 채팅을 자신의 채팅에서 언급하였다. '시청자 6'의 채팅 직전에 진행자는 인공지능이 딥 러닝을 통해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시청자 6'은 이와 관련한 정보로써 '시청자 2'의 발화를 기억하고 다시 제시한 것이다. 즉 '시청자 6'은 다른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떠올리며 그것을 진행자의 설명 내용과 연결 지어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의 의문은 이번 방송의 소재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시청자로서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방송된 내용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시청자 2'는 자신의 채팅에 앞서 전문가가 제시한 정보가 아니라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청자 2'가 언급한 경험은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시청자 3'은 앞서 진행자가 언급한 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는 진행자가 언급한 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④ '시청자 4'의 채팅은 방송 중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전문가가 답변한 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04 정보 구성 언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3의 상황은 '○○이 짐이 됩니다.'라는 짧은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배송 기사 업무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수용자가 배송 기사와의 관계에서 지양해야 할 바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의 이미지에서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위험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모습이 조감되고 있다. 이는 배송 시 도로 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잘 드러나도록 멀리서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 #3의 이미지에서 무시와 재촉을 받은 배송 기사는 풀이 죽은 표정을 짓고 있고, #4의 이미지에서 존중을 받은 배송 기사는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는 배송 기사 표정이 #2, #3과 #4에서 대비되도록 배우에게 연기를 지시함으로써 영상화할 수 있다.

④ #1~#3의 각 이미지 및 시각 효과 설명을 통해 배송 기사가 운반하는 상자 위로 특정 단어('짜증', '무시', '재촉')가 적힌 상자가 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송 기사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시각 효과로 나타낸 것이다.

⑤ #4의 내레이션에는 배송 기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장이 있다. 이는 배송 기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들로, 이를 다양한 목소리로 녹음하여 배송 기사를 존중하자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스토리보드에서 청유문을 반복하여 활용하면서 수용자에게 부드럽게 권고하는 느낌을 주는 내레이션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스토리보드에서 자막으로 제시하는 글귀들은 동일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② 스토리보드의 #1~#3에서는 자막에 '짐'이라는 한 음절 단어를 사용하고, #4에서는 '힘'이라는 한 음절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맥락상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스토리보드의 자막에서는 평서문이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1~#3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강조하는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⑤ 스토리보드의 #1~#3에서는 ‘짜증’, ‘무시’, ‘재촉’과 같이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단어들을 동일한 문장 구조 속에서 교체하여 수용자가 경계해야 할 점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다.

10	매체	본문 179~183쪽
01 ⑤	02 ②	03 ④
05 ②		04 ③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배달 앱과 관련하여 배달 앱 사업자의 영업 이익이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과,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이 앱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업계의 상황을 나타내는 내용이 설문 조사 대상인 음식점주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설문 결과를 부제로 제시하여 배달 앱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점주가 대다수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세 번째 항목에서는 설문 조사 응답자인 음식점주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문 조사의 응답 결과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첫 번째 항목에서는 타 기관인 △△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배달 앱을 통한 배달이 일반화되었음을 제시하여, 설문 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네 번째 항목에서는 설문 조사의 실행 주체인 ○○부가 설문 조사로 확인된 문제 상황의 개선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네 번째 항목에서는 배달 앱 사용의 일반화가 음식점주의 영업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배달 앱 이용이 늘면서 음식점주는 고객 응대와 배달에 들이는 노동을 절감하고, 주로 음식 만들기만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슬라이드 1]의 화살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주의 손동작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음식점주가 담당했었던 광고, 주문, 배달을 배달 앱이 담당하게 되었음이 드러난다. 이는 (나)의 [슬라이드 1]에서 음식을 제외한 세 가지 그림이 배달 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③ (가)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배달 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 양 고객 집단의 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하였다. 이는 [슬라이드 2]에서 배달 앱이 소비자 및 음식점주와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④ (가)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설문 조사 결과를 [슬라이드 3]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그중 응답 비율이 높은 두 가지 항목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굵게 처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통해 음식점주들이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슬라이드 3]에서는 음식점주의 우울한 표정을 통해 그래프의 내용에 대한 음식점주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슬라이드 4]와 달리 수정된 [슬라이드 4]에는, 배달 앱에 음식점주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한 영향이 소비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는 일러스트와 텍스트가 추가되었다. 이는 음식점주가 겪는 상황이 소비자에도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수정된 [슬라이드 4]에서는 수수료 체계의 개선이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효용 증가로 이어짐을 표정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 배달 앱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상황이 소비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드러난 것은 아니다. 또한 [슬라이드 4]에는 배달 앱 및 음식점을 평가하는 주체가 소비자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음식점주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내용이 (가)에 등장하지만, 바뀐 [슬라이드 4]에 배달 앱에서 설정되는 가격의 적절성을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바뀐 [슬라이드 4]를 통해 ‘중개 수수료, 광고료 인하’가 ‘가격 내리기 / 양 늘리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수료 체계의 개선이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

로, 소비자가 음식점주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⑤ (가)에서 배달 앱의 등장 이후 음식점주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소비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바뀐 [슬라이드 4]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배달 앱 이용 습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0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자신의 네 번째 발화에서 연구원이 준비해 온 표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자료의 출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연구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자신의 첫 번째 발화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이슈를 오늘 방송에서 다룬다고 하였다. 이는 방송 주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변화와 관련한 것임을 제시한 것이다.

② 진행자는 자신의 세 번째 발화에서 방송 중 채팅에 연구원이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초대 손님인 연구원과 구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④ 진행자는 자신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모과빛'의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 역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고령자가 이동권의 큰 부분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구독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진행자 자신이 동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⑤ 진행자는 자신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보낸 뒤에 이어질 방송의 내용이 무엇일지를 연구원에게 묻고 있다. 이는 구독자들이 이어질 방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곰곰'은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대처 속도가 늦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자신의 할아버지는 운전을 더 조심히, 천천히 하셨다며 주변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연구원은 고령자의 운전 특성상 고령자들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고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덧붙였다. '곰곰'을 통해 연구원은 앞선 자신의 답변에서 제시한 정보와 상반되는 관점의 정보를 구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포도'는 연구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의 수치와 관련하여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의 비율을 물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정보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요청된 정보와 관련한 수치를 시각 자료가 아닌 말로 전달하였으며, 이는 수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찾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다.

③ '방그레'는 운전자의 나이가 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는 이전에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연구원은 구체적인 수치의 발표 결과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나이가 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대답했다. 이를 연구원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손깍지'는 진행자가 제시한 표에 나타난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했다. 연구원은 손깍지의 채팅 이후에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손깍지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모과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회의적인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현행 제도의 역기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과빛의 채팅 이후 연구원은 교통과학연구원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도로 위 안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은 연구원의 해당 발화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11 매체		본문 184~189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맨 아래에 위치한 기사의 하단에는 관련 기사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는 관련 기사를 클릭해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면 상단에는 기사를 배포한 언론사의 기사를 구독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수용자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들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구독 기능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한 사람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표제 아래에는 기사가 최초로 입력된 일시와 수정된 일시가 제시되어 있다. 수용자는 이를 통해 기사가 최초 입력된 이후 수정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나)는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정렬되어 있어 수용자가 그중 원하는 기사를 클릭하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수용자는 기사가 목록에 올라온 순서와 관계없이 기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에는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한 화면에 제시되어 있다. 수용자는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화제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이를 통해 언론사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선호 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표제에서 썸지에 든 돈처럼 적은 돈을 이르는 ‘썸짓돈’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적은 돈을 벌려다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앱 테크를 통한 이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표제에서 많지 않은 몇 푼의 돈을 이르는 ‘푼돈’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앱 테크를 통해 적은 돈이 모여 큰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앱 테크를 통한 이득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표제에서 주로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주의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상한 앱 테크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 수용자에게 앱 테크 업체 중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언제든 어디서든 간편하게’라는 표현으로 표제를 시

작하고 있다. 이는 앱 테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수용자에게 앱 테크에 참여하는 방법이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쉽게 돈 벌어 볼까?”라고 앱 테크를 해 보려는 사람이 할 법한 발언을 표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앱 테크 사기에 대한 표제 뒷부분의 내용과 연결되어, 앱 테크를 실제로 이용한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뜻밖에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을 뜻하는 ‘날벼락’, ㉥은 몹시 분하여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는 뜻의 ‘분통’이라는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사에서 앱 테크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소재로 다루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의 1문단에서는 앱 테크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원 가입, 퀴즈 맞추기, 광고 시청, 설문 참여 등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러 종류의 앱 테크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앱 테크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내용을 적절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의 1문단에서는 걷기 앱 테크가 최근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 ② (다)의 3문단에서는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가 ‘포인트 숲숲’ 앱의 걷기 앱 테크를 추천한 바 있다고 했지만, 본문에 이 정보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 ③ (다)의 3문단에서는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포인트 숲숲’ 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정보를 제시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한 조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설문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타당한 정보인지 살피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다)는 앱 테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A 금융 그룹의 ‘포인트 숲숲’ 앱을 설치하면 추첨을 통해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결국 특정 금융 그룹의 앱을 광고하는 기사형 광고가 아닌지 살피는 것은 적절하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이번 정책의 재활용 대상에는 패각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소재인 패각을 포함하여 해양 수산부의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알려 준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보도의 소재인 패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굴과 꼬막을 겨울철 별미로 좋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굴과 꼬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한 것이지, 진행자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 ② 진행자는 보도의 소재인 '패각'을 '껍데기'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정책에서 우려되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의 소재를 일관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기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이미 해외에서 패각을 해안선 복원을 위한 재료나 수질 정화제 등으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산업 자재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패각의 재활용 정책에 참고가 되는 해외의 사례일 뿐,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④ 기자는 패각의 재활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어민과 정책의 추진 계획을 언급한 정책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소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패각이 보관 과정에서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를 풍겨 어촌의 큰 고민거리였다는 기자의 첫 번째 발화 내용의 일부를 화면에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자의 발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므로, 발화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진행자가 해양 수산부의 정책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면서 보도의 주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보도의 중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어민의 인터뷰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막은 어민의 발화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민의 말에 담긴 의미를 시청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정책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정책 담당자의 발화 중 이번 정책의 목표와 관련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보도를 마치며 기자의 소속 부서, 이름, 제보 및 문의를 위한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 노출한 것이다. 이는 기자에 대한 추가 정보로, 시청자가 기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매체	본문 190~196쪽
01 ⑤	02 ⑤	03 ⑤
05 ③		04 ④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호는 첫 번째 발화에서 VR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VR 콘텐츠는 학교 공간들을 삼차원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 학교 공간을 실제처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는 학교 건물 로비의 실제 모습과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는 각 공간의 메뉴나 아이콘을 클릭해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각 공간을 클릭한다고 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호는 첫 번째 발화에서 VR 콘텐츠가 학교의 공간들을 삼차원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 건물 로비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 공간의 모습을 삼차원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나)를 체험하며 공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② 연재는 첫 번째 발화에서 미술관 투어 VR 콘텐츠를 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관람객 시선의 높이에서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 건물 로비의 모습을 사람의 시선 높이에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를 통해 이용자는

공간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③ 도현은 첫 번째 발화에서 학교 건물의 각 층을 메뉴로 구성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공간을 클릭해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나)에는 화면 상단에 학교 건물명, 화면 좌측에 건물의 각 층이 메뉴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공간에서의 동선과 상관없이 이용자는 (나)에 제시된 메뉴를 클릭하여 각 공간들을 탐색할 수 있다.

④ 지호는 첫 번째 발화에서 중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므로 VR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해 제작한 VR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나)에 접속하여 공간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2 정보 구성 언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호는 네 번째 발화에서 건물 내부 말고 각 건물의 외관이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에 도현은 화면 아랫부분에 따로 나가기 버튼을 두어서 이를 클릭하면 건물 외관의 모습이 담긴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나)의 화면 아랫부분에는 나가기 버튼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호는 두 번째 발화에서 화면 상단에 건물의 이름을 배치하고, 좌측에는 선택한 건물을 층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연재는 이에 동의했다. 현재 (나)의 상단에는 건물명 메뉴가, 좌측에는 층별 메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두 항목을 맞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연재는 세 번째 발화에서 건물 내부 화면에서는 다른 학교의 샘플에서처럼 각 공간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표시되고, 그것을 클릭하면 각각의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냐고 물었고, 도현은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나)에는 도서관과 과학실로 향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화살표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지호는 세 번째 발화에서 층별 배치도 안에 각 공간의 이름과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넣고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연재는 이에 동의했다. 현재 (나)의 우측 밑에는 층별 배치도가 있고, 각 공간에 이름과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각 공간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도현은 두 번째 발화에서 내부 공간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설명 창이 뜨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유진은 그런 곳에 느낌표 아이콘을 넣어 추가 정보가 있음을 나타내자고 답했다. 현재 (나)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 갤러리'에는 정보를 나타내는 느낌표 아이콘과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느낌표 아이콘을 화살표 모양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회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대담을 시작하며 대담 참여자들의 이름과 소속, 직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방송의 내용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담 참여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을 올린 시청자에 대해서는 질문의 내용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회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최근 10대 유명 아이돌이 인터뷰에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의 뜻을 몰라 말실수한 사건을 언급하며 청소년의 문해력 부족 문제라는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룰 내용이 시의성 있는 소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대담에서 사회자와 대담 참여자인 박 교수, 김 연구원은 격식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담이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담화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사회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시청자에게 지금부터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방송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질문을 올릴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회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시청자 게시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연구원에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도 시청자 게시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 교수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4]의 자막은 박 교수의 주장 중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간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서 김 연구원이 글을 읽는 데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지어 박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대담의 다른 참여자가 주장한 내용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의 자막은 대담의 주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시청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대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장면 2]는 화면을 이등분하여 대담 참여자를 한쪽씩 배치하고 자막으로 각각의 의견을 대치해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시청자가 대담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장면 3]의 자막은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냐는 질문에 대한 김 연구원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시청자가 김 연구원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장면 5]의 자막은 앞서 [장면 1]에서 보여 준 대담의 주제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사회자가 대담 주제를 다시 언급한 것과 어우러져 시청자가 대담의 주요 내용을 환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은 시청자 중 방송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며, 대담에서 독서나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말해 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매체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려는 수용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은 방송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방송에서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 ② 학생은 방송에서 문해력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와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것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학생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 재미나 도움 등 다양한 것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방송에서 다른 내

용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관련된다. 학생이 전문가의 출연과 관련해 방송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에서 출처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생은 방송 내용이 방송 프로그램에 할애된 시간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01	통합	본문 197~200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1 매체의 유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사에 사용된 사진을 찍은 장소가 '여우 생태 관찰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사의 내용을 통해 생존해 있는 148마리의 여우 중에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는 76마리를 제외하고 방사를 앞둔 여우들과 방사 후에 다쳐서 돌아온 여우들이 생태 관찰원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진 속 여우들이 생태 관찰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방사 예정이거나 방사 후에 다쳐서 돌아온 여우 중 일부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기사의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② SNS에 기사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기사에 나와 있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다른 언론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기사의 최초 입력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여우 복원 사업의 현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정을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주간 뉴스 순위'에서 김△△ 기자의 다른 기사는 3위지만, 현재 화면의 기사는 없다. 따라서 '주간 뉴스 순위'를 통해 수용자들이 '기자의 다른 기사'에 비해 여우 복원 관련 기사를 접한 횟수가 더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독자 2’는 ‘기사에 나온 61%라는 수치는 정확한 건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61%’는 방사한 여우의 생존율이라고 (가)에 제시된 수치이다. 따라서 ‘독자 2’는 기사에서 밝힌 여우의 생존율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자 1’은 자신이 어제 보았던 기사의 내용이 (가)의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가)의 기사가 시의성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에서 언급한 ‘2010년대 초’는 생존 여우의 개체 수 확인 시점이 아니라 토종 여우 복원 사업 시작 시점이므로 ‘독자 3’이 기사에서 생존 여우의 개체 수 확인 시점을 2010년대 초라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독자 4’는 (가)의 기사에서 여우가 2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한 것이 과장된 진술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 ⑤ ‘독자 5’는 (가)의 기사에서 여우에 대한 범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 보충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 아니라 울무 설치가 불법 행위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 보충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여우가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나)에 제시된 여우 캐릭터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여우의 실제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제목에 (가)의 기사에서 사용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연결 고리’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에 제시된 여우의 역할에 (가)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 역할이 추가되어 있다.
- ④ (가)에서 인터넷 주소로 제시했던 정보를 (나)에서는 QR 코드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종 여우가 멸종 위기라는 점을 ‘멸종 위기 1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제시하여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가 포함된 문단에서는 여우 복원 사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하나는 방사된 여우들이 자연에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우 복원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 ㉔에서 보조사 ‘도’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서 ‘셈’은 의존 명사로, ‘-는 셈이다’의 구성은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 ② ‘있다’가 ‘-르 수 있다’ 꼴로 쓰이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 ③ ‘-가량’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④ ‘못하다’가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02	통합	본문 201~204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배포와 사용을 허가한 이미지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므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이미지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발언할 때가 아니면 마이크를 음 소거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기존 영화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동아리 영화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③ 기존 영화제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 영화제의 실현 가능

성을 보여 주기 위해 성공적으로 비대면 영화제를 실시한 사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있다.

④ 이미지를 화면에 띄우는 방식에서 대화창에 이미지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제공하는 시각 자료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3’에서 QR 코드를 활용한 것은, 카드 뉴스 생산자의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드 뉴스 수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자는 ‘명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카드 1’에서 이미지를 삽입한 것은, 영화제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는 ‘지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② ‘카드 1’에서 영화제 제목의 글자를 크게 제시한 것은, 변경된 영화제 명칭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③ ‘카드 2’에서 표를 활용한 것은, 기존 영화제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표로 제시하자는 ‘지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⑤ ‘카드 4’에서 문구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불법 공유 금지를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문구와 함께 삽입하자는 ‘서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03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파급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학생은 (나)에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사람이 영화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뿐 아니라 여러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 영화제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뉴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복합 양식을 활용한 것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양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③ (나)에서 활용된 언어의 수준이 매체 수용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④ (나)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서진’이 한 말에서 ㉞는 담화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즉 ㉞ 바로 앞에 있는 ‘지수’가 한 말 중 ‘카드 4’에서 불법 공유 금지에 대해 안내하자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

03	통합	본문 205~208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요리 연구가는 방송에서 삼계탕용 닭을 사면 손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요리 연구가는 ‘시청자 게시판에서 방송 요청이 가장 많았던 음식’이라고 밝히며 음식 선정에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진행자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다며 감자나 양파를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요리 연구가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④ 요리 연구가가 ‘시간상 끊이고 있는 걸 다 찍을 수는 없어서 ‘완성품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녹화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진행자는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방송 누리집에 접속하면 방송 내용을 간추려 놓은 동영상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02 정보 구성 언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모두 요리 연구가가 언급한 내용임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은 진행자가 날씨와 관련하여 ‘쌀쌀한 날씨’라고 언급한 내용을 방송 시기에 맞게 바꿔서 ‘따뜻한 봄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은 요리 연구가가 밝힌 양념 재료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은 진행자가 밝힌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⑤ ㉢은 진행자가 묻는 내용에 대한 요리 연구가의 답변 내용을 '하나', '둘'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참깨 들깨'는 '닭볶음탕은 정말 좋은 요리죠. 좋은 요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버터 사랑'의 반응에 대해 요리 연구가가 방송에서 '영양 만점 요리죠.'라고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영양 만점인 좋은 음식을 알려 주니까 너무 좋아요.'라며 공감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요리 고수'는 방송 내용과 달리 청주를 활용한 요리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참깨 들깨'가 방송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음식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요리조리'는 진행자가 닭볶음탕과 관련하여 언급한 다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자는 해당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지,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④ 방송에서 특정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버터 사랑'은 '아마도 최대한 쉽고 간편한 요리 방법을 안내해 준다는 방송 취지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요리 고수'가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요리 연구가가 채소를 다듬는 법을 설명하면서, 감자와 양파는 4분의 1 크기로 등분을 하라고 했고, 대파는 가르라고 했다. 채소를 다듬는 방법이 다 다른데, '가르다'라는 동사를 써서 대파를 다듬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런'은 관형사가 맞지만, 직접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닭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③ '졸깃졸깃하다'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④ '팔팔'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⑤ '와'는 감탄사가 맞지만,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로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04 통합		본문 209~212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속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진행자가 지난 주에 다루었던 주제와 방송 이후 청취자의 반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취자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박사가 AI 화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그림을 제시했으나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청취자들이 그림을 볼 수 없으므로 진행자는 출력된 그림을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② 인터뷰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경쾌한 배경 음악이 삽입되어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다음 주 방송 주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임을 언급하며 해당 코너를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자의 발화를 통해 다음 방송에 대한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청취자가 생성 AI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생성 AI가 활용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청취자 5'가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이에 관해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자 할 뿐 추가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소개한 생성 AI에 대한 내용에 대해 AI 작곡 프로그램, AI가 디자인한 옷 등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적용하여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② '청취자 2'는 AI 화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밝히면서 프로그램의 체험판 앱이 공개된 사

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취자 3’은 생성 AI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에서 AI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청취자 4’는 AI가 인간이 예술을 창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AI를 잘 활용한다면 AI가 생성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자극하고 창의적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박사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AI가 그린 그림을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라고 보는 박사의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라디오 생방송은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즉시 수용자에게 전송되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ㄱ). 또한 진행자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라디오 생방송이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되는 매체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ㄴ).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ㄷ. 라디오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 유통의 폐쇄성이 높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ㄹ.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자신의 발언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ㅁ. 청취자 게시판은 활용하고 있으나 진행자가 방송 내용과 관련된 청취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것이시군요’에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을 통해, ‘그 말씀’, 즉 ‘박사’가 한 말을 높임으로써 ‘박사’에 대한 간접 높임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인용절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업로드됩니다’에 사용된 피동 접사 ‘-되다’는 그림을 업로드하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된 피동문을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④ ‘나누어 봅니다’에 사용된 보조 용언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로, 지속적인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봅니다’에 사용된 종결 어미 ‘-습니다’는 하십시오체로 청취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담화 맥락상 ‘공학 칼럼니스트 ◇◇◇ 님’은 청자가 아니므로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는 대상이 아니다.

05 통합 본문 213~217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④
------	------	------	------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자는 체력 인증 센터에 방문하여 체력 측정을 한 시민의 의견을 취재하여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장면 2], [장면 3], [장면 4]에서 건강 운동 관리사와 시민과 전문가의 인터뷰 장면이 제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발언 내용의 일부를 자막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가)의 [장면 1]에서는 보도 주제가 자막으로 제시될 뿐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가)의 [장면 2]는 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 운동 관리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화면을 분할한 것이다. 따라서 진행자와 기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가)의 [장면 4]에서 출처가 명시된 그래프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기자의 리포트 내용과 관련한 자료이며 전문가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0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기자’의 발언을 통해 전국의 체력 인증 센터에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연령별 무료 체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 말풍선이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말풍선의 내용은 수용자에게 체력 측정 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기자'의 발언을 통해 체력 인증 등급이 체력 수준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이러한 체력 인증 등급 기준의 종류를 숫자와 메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가)에서 '건강 운동 관리자'의 발언을 통해 체력 측정 이후에는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처방한다는 정보를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이러한 '국민체력100'의 진행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화살표로 그 절차를 표시하였다.
- ③ (가)에서는 '기자'의 발언을 통해 체력 인증 센터에서 검사를 받아 보고 싶다면,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체력 측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누리집 주소를 제시하여 체력 측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 주고 있다.
- ④ (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보도인 반면, (나)는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로 특정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에 비해 수용자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체육 동아리'라고 하여 이 동아리가 정보 제공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 친구들'이라고 하여 정보 수용의 대상이 ○○고 학생임을 명시하였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2'는 최근 정부나 공기업 채용에서 이 인증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각 체력 인증 등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 주었으면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보도에서 다른 정보의 양이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보도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꾸준히 운동해야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③ '시청자 3'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체력을 주제로 한 보도를 보면서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지적하며 보도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 모두 보도에서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 ⑤ '시청자 3'은 앞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말하며 보도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 2'는 보도에서 각 체력 인증 등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 주었으면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보도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에서 '보다'는 '먹어 보다.', '입어 보다.'에서처럼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뜻하는 보조 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있다'가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 ② '않다'가 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 ③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가 보조 동사로 쓰여, 객체인 '어르신들'을 높이고 있다.
- ⑤ '싶다'는 동사 뒤에서 '-고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06 통합

본문 218~221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1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2가 동영상 재생 화면을 공유한 것은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지 못해 몰입형 전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 1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통의 경험을 환기하기 위해 동영상 화면을 공유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다들 들어왔지?’라고 말하여 참여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라고 하여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서로의 말이 잘 들리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성 언어의 전달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지난주 전체 동아리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선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화면을 공유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네 번째 발화에서 몰입형 전시에 대해 추가로 탐색하였음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파일로 공유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세 번째 발화에서 마이크 이상으로 음성 언어 사용이 어려워졌음을 밝히고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4는 동아리 전시 방식의 특성인 ‘몰입’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 안내 화면에서 선택한 작품의 크기를 화면 전체 크기로 확대하여 보여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3은 화면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면 왼편에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나)에서 [화면 1] 왼편의 메뉴 배열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학생 1은 관람 시간대가 구별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화면 1]을 거쳐 [화면 4]에서 다양한 관람 가능 시간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 ③ 학생 2는 동아리에서 제안된 몰입형 전시 방식이 학교 최초로 시도되는 것임을 강조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화면 1]의 전시회 제목과 함께 화면 중심에서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 ④ 학생 1은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예측하기 위해 선호하는 관람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예약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화면 4]에서 선호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안내 화면에 관람자들이 전시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직접 보았습니다 - 나도 한 줄 평!’이라는 공간을 추가한 것은 전시 후 관람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안내 화면 보완 방향’은 관람자가 관람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자는 것이며, 몰입형 전시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시의 특징을 강조하자는 내용은 보완 방향과는 거리가 있으며, 작품의 개수 조절을 개별화하자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안내 화면 보완 방향’은 전시회 관람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화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⑤ 제시된 ‘안내 화면 보완 방향’은 관람자가 관람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자는 것이며, 이용자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자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㉞에서는 ‘-면서’를 활용해 관람자가 이동하는 것과 감상하는 것이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인다.
- ② ‘-은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등에 쓰인다.
- ③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등에 쓰인다.
- ④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을 때, 앞 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등에 쓰인다.

3부 실전 학습

실전 학습 1회

본문 224~235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⑤	07 ①	08 ④	09 ②	10 ④
11 ④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가 ‘-어’와 결합하면 ‘피어’, ‘피’의 두 형태가 가능하다. ‘피’는 [피:]로 발음되는데, 이는 두 개의 단모음 ‘ㅣ + ㅣ’가 반모음 ‘j + ㅣ’의 구조로 된 이중 모음 ‘ㅈ’로 바뀐 것이 반영된 발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와 ㉡는 모두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는 자음 ‘ㅎ’이 탈락한 후에 연음이 일어난다.
 ② ㉢의 [지여]와 ㉣의 [피여]는 모두 반모음 ‘j’가 첨가된 발음이다.
 ③ ㉤에서 ‘저’가 [저]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결합된 이중 모음 ‘ㅈ’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는 모음 ‘ㅡ’가 탈락하여 음운 수가 줄었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에서 ‘굳’은 형용사 ‘굳다’의 어간이 바로 부사로 쓰인 예로, 서술어 ‘디니이다’를 수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에서는 부사절 ‘맛 업시’가 부사어가 되었다. ③에서는 ‘蓮(연)스 곳 울’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으며, ④에서는 ‘中國(중국)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다. ⑤에서는 부사 ‘어느’와 ‘다’가 부사어로 쓰였다.

03 선어말 어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자료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ㄱ~ㄷ) 또는 주체의 의지나 의도(ㄹ~ㅂ)를 나타낸다. ㄷ을 ‘지금쯤 제주에도 비가 오고 있겠지?’와 같이 바꾼다면 진행의 뜻이 있겠지만

이는 ‘-고 있다’에 의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ㄱ~ㄷ에서 ‘-겠-’은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데, ㄱ은 미래, ㄴ은 과거, ㄷ은 현재 상황과 어울려 쓰이고 있다.
 ④ ㄹ과 ㅂ에서 ‘-겠-’은 모두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ㄹ과 ㅂ에서 보듯이 ‘-겠-’이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와 어울려 쓰일 수 없다.
 ⑤ ㅂ에서 보듯이 의문문에서는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겠-’이 이인칭 주어하고만 어울려 쓰이는, 인칭의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합성어의 형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남다르다’는 ‘남’(명사)과 ‘다르다’(형용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남과 다르다’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부사어 + 서술어’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늘지다’는 ‘그늘’(명사)에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뜻을 가진 ‘지다’(동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 말은 ‘그늘이 지다.’의 뜻을 가졌으므로 ‘주어 + 서술어’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마음먹다’는 ‘마음을 먹다.’의 뜻을 가졌으므로 ‘목적어 + 서술어’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애쓰다’는 ‘애를 쓰다.’의 뜻을 가졌으므로 ‘목적어 + 서술어’로 해석할 수 있다.
 ⑤ ‘힘들다’는 ‘힘이 들다.’의 뜻을 가졌으므로 ‘주어 + 서술어’로 해석할 수 있다.

05 안은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에서 관형사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의 의미는 이 절이 수식하는 명사 ‘경험’과 내용상 같다. 그러므로 이 관형사절은 동격절이다. 동격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앞에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과 같이 불완전한 절 형식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에는 ‘내일 저녁에 도착한다고’가 인용절로 안겨 있다.

- ②에는 '이 작품을 쓴'이 관계절로 안겨 있다.
- ③에는 부사절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이 안겨 있다.
- ④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용상 같으므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동격절이다. 이 동격절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앞은 완전한 문장 형식이다.

06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관계절 '부드럽고 파스한'에는 주어로 해석할 수 있는 '바람'이(바람이), 관계절 '벚꽃이 피어 있는'에는 부사어로 해석할 수 있는 '강변'이(강변에), 관계절 '집에서 준비해 온'에는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는 '점심'이(점심을) 각각 생략되어 있다.

07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기자는 이번에 만든 책 목록에 실린 책의 제목이 1만 4천 개가 넘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후, '~실제 발행된 책의 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기자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했다고 밝히는 부분은 없다.
- ③ 두 개의 인터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조선의 금속 활자 책 목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기자는 학생 수, 훈장 수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화제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기자가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진행자가 언급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08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4는 책값이 저렴해진 것이 출판 혁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책값을 알아본 것인데, 의외로 과거 철학책인 『대학』의 값이 당시 양민들의 수입과 관련지어 볼 때 현재 철학책의 값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고 있다. 이는 책값의 수준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 뿐, 인터뷰에서 다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전문가인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라 더 확실하게 됨을 언급하면서 뉴스에서 다른 내용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과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조선 시대의 인기 도서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뉴스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③ '학생 3'은 조선 시대의 책 모양이나 구성에 대한 실물 사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뉴스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⑤ '학생 5'는 일간지 발간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조선의 출판문화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09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조선 시대 농가에도 항상 책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조선 시대 사람들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독서 습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다른 뉴스 내용의 순서에 따라 (나)의 각 슬라이드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③ (가)에서 다른 조선의 출판 혁명이 서양보다 앞섰다는 내용을 (나)에서는 조선 책이 서양 책보다 빠르게 달리는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 출판 역량을 가늠할 때에는 서당만 언급했으나 (나)에서는 서당 외에도 성균관, 서원, 사찰 등의 기관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⑤ (가)에 제시한 조선의 출판 역량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농가마다 책이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1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혼식은 휴대 전화의 투표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하나의 사안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쉽게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 내에서 의사소통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탐구반 동아리원들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③ (가)의 진행자는 정보 수용자인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므로 문자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1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진야'는 전문가 대담 영상에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만 담아서 학생들이 자신들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이에 '태진'은 '진야'의 말에 동의하면서 영상 밑에 질문을 적으면 학생들이 전문가의 진단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학생들은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도 있으며, 자신만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면 구상에서 학생들에게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구체적인 수치도 활용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는 '훈식'의 의견을 반영하여 '0.78'이라는 수치로 출산율을 제시하여 저출생 사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실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자는 '훈식'의 의견과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자는 '태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최근 출산율의 감소 추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을 두 번째 장면에 제시하자는 '진야'의 의견과 '훈식'이 제공한 자료를 반영하되 '문제', '진단'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영상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을 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자는 '태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훈식'이 제시한 최근 주목을 받는 저출생 문제의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를 제시한 후 각각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236~246쪽

- | | | | | |
|------|------|------|------|------|
| 01 ② | 02 ② | 03 ③ | 04 ① | 05 ② |
| 06 ⑤ | 07 ② | 08 ② | 09 ② | 10 ③ |
| 11 ③ | | | | |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문의 1문단에서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는 일관된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으며, '넓고'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면 [널꼬]와 같은 표면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넓-+-고 → [널꼬]'는 '넓-+-고 → 넓꼬 → [널꼬]'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살-+-는 → [샤:는]'은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어 [샤:는]으로 발음됨에 따라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면형이다.
- ③ '짓-+-는 → [진: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짓-'의 'ㅅ'이 'ㄷ'으로 바뀐 다음 '는'의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닭고 → [닥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닭-'의 'ㅍ'이 'ㄱ'으로 바뀐 다음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똥-+-고 → [똥꼬]'는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되어 [똥꼬]로 발음됨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면형이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값-+-는 → [감는]'은 '값-+-는 → 감는 → [감는]'의 과정을 거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값'의 'ㅍ'이 'ㅂ'으로 바뀌지 않으면 비음화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 '빠지-+-어 → [빠:저]'는 '빠지-+-어 → 빠저 → [빠:저]'의 과정을 거치며, 반모음화가 먼저 적용되어 'ㅈ' 뒤에 'j'가 이어지지 않으면 반모음 'j' 탈락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 '찾-+-고 → [찰꼬]'는 '찾-+-고 → 참고 → [찰꼬]'의

과정을 거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찾’의 ‘ㄷ’이 ‘ㄷ’으로 바뀌지 않으면 된소리되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맑-+-게 → [말께]’는 ‘맑-+-게 → 맑게 → [말께]’의 과정을 거치며,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 두 규칙은 ‘맑-+-게’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도록 된소리되기를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짧-+-다 → [짧따]’는 ‘짧-+-다 → 짧따 → [짧따]’의 과정을 거치며,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 두 규칙은 ‘짧-+-다’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도록 된소리되기를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믿었었지만’은 ‘믿-+-었-+-지만’으로 분석된다. ‘-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예측하길’은 ‘예측하-+-기+르’로 분석되는데, 명사절 ‘... 예측하기’에 목적격 조사 ‘르’이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고, 전성 어미만 사용되었다. ‘-기’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② ‘예상하셨나요’는 ‘예상하-+-시-+-었-+-나+요’로 분석되는데, 맨 끝의 ‘요’는 보조사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시-’는 주체 높임을, ‘-었-’은 시제를 나타내고, ‘-나’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이르렀습니다’는 ‘이르-+-었-+-습니다’로 분석되는데, ‘이르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이르렀습니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었-’은 시제를, ‘-습니다’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⑤ ‘냈을’은 ‘내-+-었-+-을’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었-’은 시제를 나타내고, ‘-을’은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04 안은문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있는 안긴절인 명사절 ‘벼농사를 짓기’에는 ‘사람들이’ 따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있는 안긴절 중 관형사절 ‘자기가 원래 소속된’에는 ‘그 집단에’ 따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주어는 ‘바로 그 결정이’인데, 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서는 ‘부지런한’이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③ ㉠에 있는 안긴절인 ‘벼농사를 짓기’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의 부사어인 ‘벼농사를 짓기에’와 ‘푹’은 안긴절 속에 있는 부사어가 아니다. ㉢에 있는 안긴절 중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속에는 부사어 ‘가구에’가 있다.

④ ㉠에 있는 안긴절인 ‘깔끔히 된’의 서술어인 ‘된’과 ‘깔끔히 된 일을 그르친’의 서술어인 ‘그르친’은 둘 다 보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에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깔끔히 된’의 ‘된’은 ‘일이 잘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이때는 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에 있는 안긴절인 ‘부지런한’과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역시 둘 다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라 볼 수 없다.

⑤ ㉠에 있는 관형사절 중 ‘깔끔히 된’의 서술어 ‘된’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며, ‘깔끔히 된 일을 그르친’에는 목적어 ‘깔끔히 된 일을’이 드러나 있다. ㉡에 있는 관형사절 ‘자기가 원래 소속된’의 서술어 ‘소속된’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술보되’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달바마라’가 아니라,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부터찌’의 ‘찌’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로,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쓰였다.

③ ‘나쓰북시니잇고’의 ‘-술-’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여래’를 높이기 위해 쓰였다. 어간 ‘낱-’의 끝소리가 ‘ㅎ’이어서 ‘ㅎ’과 ‘ㅅ’이 결합하여 ‘-쑈-’으로 나타난 것이다.

④ ‘세존하’의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로, 현대어 풀이 ‘세존이 시여’에서 알 수 있듯이 ‘세존’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나쓰북시니잇고’의 어미 ‘-잇고’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

한 형태로, 청자인 '세존'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⑤ '닷ㄱ시며'의 '-으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마야부인'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나쓰북 시니잇고'의 '-으시-' 역시 '낳다'의 주체이자 생략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마야부인'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06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인터뷰 대상의 발화를 촬영한 장면으로, 대상자의 신분을 밝히는 자막이 추가되었다.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소음 피해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화면 아래에 자막을 깔아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었다.

② ㉡에서는 낮과 밤의 소음도 수치를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달 내용을 부각하였다.

③ ㉢의 자막은 앞서 제시된 '실제로 그럴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능하면서 시청자의 집중을 유도하였다.

④ ㉣에서는 도로와 아파트의 간격, 낮과 밤에 소음에 노출되는 아파트의 층고 차이를 시각화하여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07 문장 성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실시간 소음 측정치'라는 정보 제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은 '보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서는'은 격 조사 '에서'가 단체 명사 '환경부'에 붙어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환경부'임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의 '그 결과'는 앞 문장의 '수도권 17곳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를 의미하며, 앞 문장의 서술을 반복하는 대신 '그'를 사용하고 있다.

④ ㉣의 '서울 지역 8곳의 소음 측정치는'은 주제 보조사 '는'이 결합한 것으로, 문장의 화제가 '서울 지역 8곳의 소음 측정치'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의 '온종일 옆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것과'에서 부사격 조

사 '과'는 서울 지역 8곳의 소음 측정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08 매체 자료의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1은 보도에서 도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해외와 국내의 것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문제 해결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보도에서 다른 제재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며,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 1은 진행자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소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보도 제재의 도출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도의 제재와 최근 상황을 관련지어 제시한 점에 주목하여 그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학생 2가 소음 분야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에 주목하면서 '믿을 만해 보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학생 2가 '저소음 타이어'로 인해 도시 소음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 진술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학생 3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쉬워한 것은 보도 내용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글과 함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이들이 소제목을 통해 구분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치유의 숲', '등장 배경', '목적' 등의 설명 항목이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되고 있다.

③ 글의 마지막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직접 탐방 경험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진 자료를 첨부하고 치유의 숲 운영 매뉴얼을 파일로 첨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치유의 효과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과 같은 관련 내용을 다른 게시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0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6’과 ‘카드 7’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사진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정적인 성격과 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가 대조적이라는 점은 카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카드 2’에서는 산림 치유의 환경 요소가 사람을 향하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카드 4’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산림 치유를 △△군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효과음을 제시하였다.
- ④ ‘카드 8’에서는 ‘말을수록 향기로운 숲 내음 / 걸을수록 가벼운 발걸음’과 같이 대구를 이루는 문구를 사용하여 산림 치유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카드 8’에서는 상세 정보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1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면 2]에서 나열된 산림 치유의 효과를 ‘카드 3’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효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카드 3’에서는 내용의 출처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화면 2]에서는 산림 치유의 효과를 우울 증상 완화, 혈압 감소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은 ‘카드 3’에서도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 ④ [화면 2]와 비교할 때 ‘카드 3’에서 정보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⑤ ‘카드 3’에서는 산림 치유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한 것은 아니다.

